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dgupress.dongguk.ac.kr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260-3491~2 FAX(02)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4)770-2057

제1352호 2002년 (불기 2546년) 10월 28일 월요일

금주일언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다.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송고승전

제15대 총장선거 4명 입후보

정병조 홍치유 홍기삼 조희영 교수 … 내달 20일 투표

제15대 총장후보 추천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입후보자는 추첨을 통해 △기호1번=정병조(윤리문화학) △기호2번=홍치유(물리학) △기호3번=홍기삼(국어국문학) △기호4번=조희영(경영학) 교수로 정해졌다.

선거는 다음달 2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며 교수회는 최다 득표를 한 2명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한다.

또한 직원노조(지부장=강형석)도 교수회 선관위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자체 선거를 같은 날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1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2명의 후보를 교수회와 별도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교수·직원이 추천한 후보 이외에 다른 교수를 총장으로 낙점할 경우, 지난 98년 송 총장 연임과정에서 나타난 학내분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유세는 교수·직원 선관위 공동으로 다음달 6일 오후 3시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한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유세는 △1부=후보자 정책발표 △2부=교수·직원·학생 각 2명과 방청인의 학교발전계획과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경주캠퍼스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총장선거과 같은 날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30일 까지이다.

입후보자 약력은 다음과 같다.

기호 1번

△성명: 정병조
△생년월일: 1947년 7월 25일
△학력: 본교 인도철학과 졸업 동대학원 철학박사
△경력: 중앙도서관장 사회교육원장 부총장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기호 2번

△성명: 홍치유
△생년월일: 1938년 3월 13일
△학력: 본교 물리학과 졸업 동대학원 이학박사
△경력: 의료원 기획관리실장 반도체연구소장 부총장 사명당 기념사업회 이사

기호 3번

△성명: 홍기삼
△생년월일: 1940년 12월 20일
△학력: 본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일본 쓰쿠바 대학 문학박사
△경력: 기획조정실장 문과대학장 한국문학연구소장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기호 4번

△성명: 조희영
△생년월일: 1938년 12월 29일
△학력: 본교 경영학과 졸업 독일 본대학 경제학박사
△경력: 총무처장 기획조정실장 경영대학원장 한국아데나워 학술교류회 명예회장

개원준비 '제자리걸음'

준비위 성격 논란 … 이사회소집 필요

불교병원 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영배스님, 이하 준비위)가 발족된지 1개월이 지났으나 개원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위는 지난 8일 1차회의를 개최해 △병원개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검토·기획·준비·의결한다 △법인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실무팀과 기획팀을 구성한다 등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위원이 "준비위가 병원에 대한 전권을 갖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준비위원인 일면스님은 "준비위의 성격규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영배스님은 "다음 회의에서는 규정안에 대한 재논의보다 개원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재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해 규정안에 대한 논란은 이사회 통과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준비위 2차 회의는 오는 11월 중 소집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준비위의 역할 논란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이사회는 준비위의 위상 등은 1차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채 약 1시간만에 마쳤다.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준비위 활동방향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고 말했다.

또한 준비위 1차 회의에서 오녹원 이사장이 불참하고 송석구(철학) 총장이 사퇴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준비위 구성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재단의 대표가 준비위에 참여하지 않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개원준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불교병원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 소집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준비위의 성격 규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학내·외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송 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이사회 의제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달 말 교수·직원·학생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 불교병원관련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각 주체들은 총장선거가 오는 20일로 확정돼 공청회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규환 직원노조 사무국장은 "공청회는 무산됐지만 총장 후보자 유세 때 병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등책협 구성 준비모임 오는 31일 예정

'등록금책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총학생회가 학교측에 준비모임을 제안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학사일정 15주 단축에 대한 학교측과 총학생회의 논의는 내일(29일)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내년 학사일정이 16주 수업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최종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구부 유한준 선수 대륙간배 대표 선발

야구부(감독=한대화) 유한준(체교3) 선수가 '제15회 대륙간배 야구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쿠바의 아바나에서 다음달 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와 중·남미, 유럽 대륙의 12개국이 참가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이 출전하며 유 선수는 지난 29일부터 진행될 체력강화훈련을 포함해 약 한달간 선수단에 파견된다.

또하나의 '열반' … 지난 25일 만해광장에서 'Feel Nirvana'라는 모토로 열린 동아리 연합제(이하 동연제)의 중앙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만해광장은 뭉게구름, 피어리스던 등의 공연동아리의 열기로 가득했다. 동연제는 이 행사를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정재철동문, 불상 2점 박물관 기증

정재철(정외52졸) 유암문화재단 명예이사장이 지난 17일 고려시대 불상 '석조나한상'과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본교 박물관(관장=장충식·미술사학)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정 이사장의 부인 고 전금주 씨가 생전에 정 이사장의 모교에 기증할 뜻을 밝혀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불상의 제작 시기가 고려시대 이전으로 추정돼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불상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 유영빈·이상현 조 단독출마

총대·졸준위선거 내일(29일)부터 투표

2003년도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 결과 유영빈(경영4)·이상현(야간경영3) 조가 단독 출마했다.

출마 구호는 '통일시대 새 동국을 여는 일만이천, 현실을 넘어 혁신과 도약으로 크게 웃자'이며, 주요 공약은 △등책협 등을 통한 학생 권익신장 △2002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등이다.

또한 각 단과대 학생회 후보 등록도 마감된 상태이다.

▶관련기사 2면(보도)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의 선거일정은 △선거운동 기간=내일(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투표일=다음달 12일부터 3일간이다.

한편, 총대의원회와 졸업준비위원회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지며 총여학생회는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았다. 투표는 내일부터 3일간 학내 곳곳에서 진행되며 총대의원회 후보자와 출마 공약은 △후보 갑=임수욱(화공3) 선거공영제 강화 △후보 을=정미희(인철4) 장학금 수혜의 투명화, 졸업준비위원회는 △후보 갑=현재형(토목3) 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후보 을=이영재(전자3) 모의 면접, 토익 지속적 실시 △후보 병=지정훈(화공4) 자격증 설명회 개최 등이다.

3면 송석구 총장 8년 평가 ①교육분야

청소년연극제 시상식 단체부문 대상 용인고

'2002 청소년 연극제' 시상식이 지난 19일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전국 31개 고등학교 연극반이 참가해 11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연극제에서 대상은 용인고 '노래하라, 그대'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연기상은 이아름(용인고) 양과 양사랑(광주동신여고) 양이 수상했다.

이밖에 각 부문별 수상자는 △최우수작품상=광주동신여고, 학산정산고 △우수작품상=세원고 외 4개교 △장려상=한영고 외 3개교(이상 단체부문) △우수연기상=이승룡(대원고) 외 5명 △장려상=이영은(송곡여고) 외 5명(이상 개인부문) △지도교사상=신현돈(송곡고), 심상면(한영고)이다.

입상한 학생에게는 본교 연극학과 지원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단체에는 장학금과 상패 등이 수여된다.

아일랜드대사 감사패 전달 대사관, 관련자료 기증

본교가 아일랜드 관련자료를 기증한 주한 아일랜드대사관에 감사패를 전달한다.

오늘(28일) 송석구(철학) 총장은 총장실에서 주한 아일랜드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일랜드대사관은 지난 8월 28일 도서 146권과 CD, 비디오를 포함한 아일랜드 관련자료 총 241점을 기증했다.

보리수

효도와 Free sex

사회생물학이란 학문이 있다. 짐승의 행동에 의거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해 내려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꿀벌이 침을 놓아 공격자를 물리친 후 죽는 것은 자신의 종(種: species)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타인에 대한 우리의 자비심 역시 '궁극적 선(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을 보존하기 위한 동물적 본능의 위장된 모습일 뿐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사회생물학적 인간 해석이 진실이라고 간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든, 학교든, 군대든 그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은 '왕따'시켜 사라지게 해야 한다.

병약한 사람은 빨리 죽게 방치하여 그 유전인자를 퍼뜨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강한 자만이 자신의 유전인자를 가진 보다 많은 개체를 생산해 내야 한다. 동물처럼 벌거벗고 사는 것이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다. 서구에 Nude촌이 유행하듯이.

뭔가 이상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짐승의 세계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한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하다. 백수의 왕인 호랑이도 늙어 죽을 때에는 늑대에게 잡아먹힌다. 수십 마리의 암놈을 거느린 수사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젊은 시절 한 때일 뿐 곧 모두 빼앗기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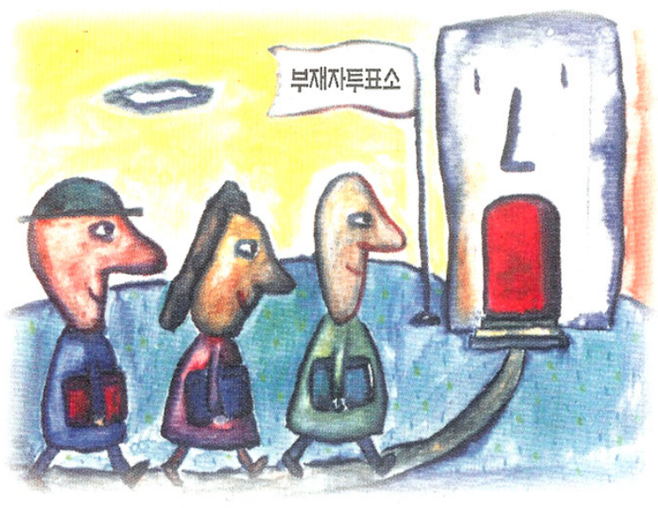
그러나 인간계의 경우, 특정한 어느 누가 지극히 행복하지는 않아도, 어느 누구도 짐승처럼 지극히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는 규범과 제도가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런 규범과 제도 중에는, 노인을 공경하는 효도, 1부1처의 단혼제(monogamy)의 전통 역시 포함된다.

감각적 물질문명이 기형적으로 발달한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전통적 가치는 하나 둘 무너지고 있다. 육체적 약자인 노인이 무시당한다. Free sex를 진보적인 것으로 착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모두가 불행할 사회로….

김 성 철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진정 요구할 줄 아는 당신이
우리시대의 '유권자'입니다

올해 약 60만명의 이르는 대학생 부재자 유권자들 …
부재자 신고서 접수와
대학 내 투표소 설치운동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동대신문사

지 면 안 내

6~7면 등록금 책정 협의회

오는 31일 학교와 총학생회가 등책협 구성위한 준비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등책협의 의미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상을 그려본다.

4면 '대선과 진보진영' 토론회
대선을 맞는 진보진영의 선택과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11면 명동, 문화메카를 꿈꾸다
최근 국립극장 복원과 함께 관심이 고조된 명동의 옛모습을 알아본다.

2003 학생회 선거 일정 돌입

8개 단과대 등록 … 미등록 단위 내년 3월 보궐선거

2003년도 단과대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 결과 문과대, 생자대, 공대, 예술대를 제외한 모든 학생회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미등록 단위는 다음해 3월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는 사과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각 후보자와 구호,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 △후보=김동국(선3)·조우영(불교3)
△구호=파사현정의 기상으로 우리를 깨우는 사자후
△공약=공간문제를 원만히 해결, 학인스님과 재가학생 간의 화합 위해 노력

이과대 △후보=장진욱(통계3)·이효선(화학2)
△구호=하나된 으뜸으로 거듭나는 일원 이과대
△공약=취업설명회를 통한 구직기회 확대, 자격증 스터디의 활성화

법과대 △후보=조천호(법3) △구호=하나되는 법대
△공약=법과대 공간문제 해결, 기초3법과 전공필수과목 교수 충원

사과대 ▲후보 갑=김홍규(정외2)·황재용(정외2)
△구호=젊은 우리, 희망 다짐
△공약=동국관 내 공간 재배치, 책·걸상 교체
▲후보 을=오원기(정외3)·김종연(사회3)
△구호=살아 움직이는 힘찬 발걸음. 침묵에서 생동으로 이제 유쾌한 반란을 감행한다
△공약=사과대 전체학생총회 성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

경영대 △후보=김준호(정보관리3)
△구호=굳세어라 경영대
△공약=경영대 교수 충원, 정기적인 영화제·학술제·강연회 개최

정산대 △후보=서윤지(멀티미디어2)
△구호=새 시대를 여는 용기 있는 도전
△공약=이공계열 도서관 마련, 매점 공간 확충

사범대 △후보=이승효(국교3)
△구호=예비교사 힘찬 질주, 다시 처음부터
△공약=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 룸비니의 광장화

야간강좌 △후보=구자룡(영문3)·김재훈(경영2)
△구호=희망의 돛대 미리내 운명개척
△공약=야간강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교육환경 개선

직무적성검사 결과배포 취업대비 특강 함께 열려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결과 배포와 특강이 내일(29일) 90주년기념 문화관 세미나실1에서 열린다.

기업의 최근 인·적성 검사 경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상담센터(소장=고진호·교육학)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지속되는 취업난에 대비해 각 기업에 대한 취업 대처전략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비달마구사론 출간 부파불교 교리 집대성

역경원(원장=김성구)이 지난 22일 '아비달마구사론' 전 4권을 출간했다.

이 책은 부파 불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아비달마'의 해설서이며 본교 동문인 경상대학교 권오민(철학) 교수가 번역했다.

사과대 '능금제' 진행 새롭게 취업설명회 열어

사과대 학생회(회장=서영건·사회3)는 오는 30일부터 3일간 '능금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30일=취업설명회 L301 △31일=전공설명회 L401, 축구·농구 결승전 대운동장·만해광장 △다음달 1일=폐막제 통일광장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폐막제는 △AJAX 초청공연 △사과대 소모임 '마구만' 공연 △장기자랑 △수배생활 영상물 상영 등의 행사로 열린다.

이와 관련해 서영건 학생회장은 "올해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취업설명회를 새롭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영인의 밤' 개최 다음달 9일 상록원

'경영인의 밤'이 다음달 9일 상록원 교직원 식당에서 열린다.

경영학과 학생회(회장=박준석)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레크리에이션 △선·후배 노래자랑 △경영 노래패 '산하' 공연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경영학과는 이외에도 다음달 7일부터 3일간 체육대회와 학술제를 가진다.

전과신청 접수 실시 다음달 18일부터 22일

2003학년 전과(전공변경) 원서 접수가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입희망 전공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실시된다.

지원자격은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진급예정자이며 허용인원은 전입 전공학과 2001년 입학정원의 50%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공변경원과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지충전 … '핸드폰무료충전기'가 학내 곳곳에 추가 설치됐다.
충전기는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의 요청에 따라 설치됐으며 혜화관 시범 설치 후 △동국관 3층과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상록원 △문화관 각 1층에 1대씩 배치했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생협, 독립법인 본격추진

상임이사제 조항 포함 정관합의

생활협동조합(이사장=허천택·영어영문학, 이하 생협)이 독립법인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생협 이사회는 지난 24일 2000년부터 진행된 정관 논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독립법인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승인된 정관을 살펴보면 독립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교수 4인 △직원 3인 △대학원생 2인 △학부생 4인 등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다.

또한 상정안건을 출석이사 전원이 합의해야만 의결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를 명문화했다.

특히 막판까지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이 엎치락뒤치락 했던 상임이사제의 근거조항이 정관에 포함됐다.

상임이사는 이사 13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생협은 다음달 말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내년 2월 회계년도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대학내 성폭력 토론회

"반성폭력학칙 유명무실"

지속적 논의로 실효성 강화해야

'학내 성폭력 실태 및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대학원 총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본교 장시기(영어영문학) 교수가 사회를 맡아 대학내 성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여성신문사 조이여울 기자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교수 성폭력 사건은 권위에 의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피해자는 교수가 학점평가나 진로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생이나 조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제정된 대부분의 반성폭력학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각 대학의 상황에 적합하게 학칙을 적용할 수 있는 시행세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수사회의 경우 남성중심적 사고가 팽배해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크게 나타나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이김보명 상담원은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발제에서 술자리나 모임 등에서 가해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주위에서도 이것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문제제기를 하려해도 과민반응을 한다는 핀잔이 걱정돼 침묵할 수밖에 없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조국현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해결의 법적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최근에는 교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일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해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본교는 몇해 전 발생한 K교수 사건이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학생 화장실 성추행 사건 등 성폭력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지난달 반성폭력학칙의 실효성을 위해 시행세칙 추가·마련 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학내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학칙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 kauri21@dongguk.edu

웹출력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웹 프린터 사이트서 프로그램 설치 후 이용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PC에서 학내 컴퓨터실습실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웹출력 서비스'가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웹프린터는 △동국관 1층 BSC1, 5층 BSC10 △정보문화관 5층 ESC4, 2층 ESC5 △명진관 2층 A2 △학림관 3층 JE 등 모두 6곳에 1대씩 배치됐으며 필요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본교 웹프린터사이트(http://dongguk.i-print.co.kr)에 가입 후 웹출력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며 결재는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핸드폰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여대생 기업연수' 학점 인정

본교가 실질적인 취업교육을 위해 참가한 노동부 주관 '여대생 기업연수'를 올해부터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매년 하계방학에 실시되는 기업연수는 졸업학점 2학점으로 인정되며, 신청과 선발은 기존과 동일하게 여학생실(실장=이혜은·지리교육)에서 담당한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 동안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회전무대

비밀

○…최근 수업에 갔다 빈 강의실만 보고 되돌아가는 학생들이 간혹 보인다는데.

알아보니 답사를 떠난 단과대에 배정된 교양필수를 듣는 타 단과대 학생들이 휴강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강의를 휴강시킬 때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그 전 시간에는 공지를 해야하지 않을지.

이에 휴강한 한 교수 왈, "내 수업의 휴강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말라."

벤치마킹

○…요즘 혜화 별관 옆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놀이터에 온 듯한 착각을 한다는데.

이유인즉 야외공간에 있는 일부 탁자의 나사가 느슨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양쪽 의자가 위아래로 움직여 시소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이런 흔들림 때문에 탁자 위에 놓아둔 커피를 쏟는 경우도 있다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혜화 별관 벤치마킹으로 동국대학교 놀이터 개장."

금지된 공간

○…상록원 건물 내·외부에 대자보 또는 포스터를 붙이려는 학생들은 상록원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미관 등의 이유로 포스터부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상록원에 알림활동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게시판을 여러 곳에 설치해야 하지 않을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대생 알릴 것은 많고 게시할 곳은 없다."

신종 좌석

○…다향관 1층 화장실을 찾는 여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는데.

이유인즉 화장실 한 곳의 변기와 덮개 모양이 일치하지 않아 덮개가 변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는 덮개보수 과정에서 모양이 맞지 않는 것이 설치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화장실 안의 신종 좌석! 앉을 때 빠질 위험 감수바람(?!)"

교육실습동의서 접수

2003학년도 교육실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육실습 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들은 기한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03년 8월 졸업 및 2004년 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실습기간** : 2003. 4. 7(월) ~ 5 . 3(토) 4주간
3. **관련서류** : 가. 교육실습협조 공문
   나. 교육실습 동의서(소정양식)
4. **교육실습동의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10.15(화) ~ 11. 15(금)
5. **교부처** : 사범대학 교학과 (소속대학교학과 또는 학교홈페이지 여론광장 → 주제별게시판 → 교직과정에서 출력가능)
6. **동의서 제출절차**
   소속교학과에서 관련서류 교부⇒ 모교나 교육실습희망학교 방문 ⇒ 연구주임선생님이나 교생담당선생님께 교육실습 공문과 본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동의서를 제출 ⇒ 실습동의서에 학교장의 날인을 받음 ⇒ 실습동의서를 사범대학 교학과에 제출 ⇒ 200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 2003년 3월 O.T실시 ⇒ 2003년 4월에 교육실습
7. **제출처** : 사범대학 교학과
8. **유의사항**
   가. 사범대학생 중 본교 협력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에 문의 및 접수바람
   나.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중 본교 협력학교로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범대학 교학과로 문의바람.
   다. 교육실습은 전반기(4월중)에만 실시하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교육실습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라. 교육실습시 실습교과목은 주전공(제1전공) 표시과목으로 함.

사 범 대 학

2003 여군사관 모집

1. **모집인원** : ○○○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3. 2월 졸업 예정자
   ○ 2003. 10. 1 기준 만 20세~27세 이하의 여자(1975. 10. 1 ~ 1983. 9. 30)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자격상 결격사유 미 해당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10. 19까지
4. **구비서류**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입수능(학력)고사 성적증명서 1부
   라.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열람용) 1부(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마. 천연색 사진(4×5cm) 3매
   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3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5.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전형(수능/대학성적)	2002. 9. 2 - 11. 9
2 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체검사	2002. 11. 11 - 12. 14
3 차	신원조회	2002. 12. 16 - 2003. 1. 11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3. 1. 24
7.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지원자)
   ○ 군 복부간 복지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제112학생군사교육단

2003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3. 2월 졸업 예정자
   ○ 2003. 10. 1 기준 만 20세 ~ 27세 이하의 남자(1975. 10. 1 ~ 1983. 9. 30)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자격상 결격사유 미 해당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11. 2까지
4. **구비서류**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입수능(학력)고사 성적증명서 1부
   라.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열람용) 1부(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 까지)
   마. 천연색 사진(4×5cm) 3매
   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5.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전형,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2002. 9. 16 - 11. 23
2 차	인성검사, 신원조회	2002. 12. 30 - 2003. 2. 22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3. 3. 12
7.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지원자)
   ○ 군 복부간 복지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제112학생군사교육단

송석구 총장
8년 평가와 과제

①교육분야
②연구분야
③경영분야
④재단과의 관계 · 학내민주화
⑤간담회-차기 총장에게 바란다.

송석구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마무리된다.
지난 94년 교수 ·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재단에 추천된 송 총장은
8년 동안 불교병원 건립추진, 학부제 도입, 행정조직 개편 등 많은 변화를 주도했다.
본사는 총 5회에 걸쳐 송 총장 재임 8년을
분야별로 평가해 차기 총장에게 남겨진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중 · 장기적 계획으로 교육개혁 추진해야

◈ 특성화

대학마다 개설된 학과가 비슷하고 교육이 획일화되면서 대학 특성화는 곧 그 대학의 발전기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본교는 어떠한가?

본교는 아직 내세울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본교는 어느 한 분야가 특성화되기 보다 여러 분야에 걸쳐 조금씩 활성화 됐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한다.

송석구 총장은 취임과 함께 "교육개방에서 살아날 길은 특성화 뿐"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이러한 송 총장의 의지를 반영해 취임 다음해인 96년 단과대별로 제시한 특성화 방안을 평가, 실천가능성이 있다면 행 ·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각 단과대는 발전위원회를 결성해 특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등 취임 초기 특성화를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장기적 계획 부재

97년 '불교학을 축으로 한국학 연구 중심대학'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계획안으로 교육개혁 추진 최우수대학 선정, 98년 정보통신 우수 시범학교로 꼽히며 특성화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특성화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선정 후 관련 분야의 교수 충원 또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밑받침되지 못해 단발적인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영상 · 정보통신 특성화를 위해 설립된 정보산업대가 모집단위가 개편될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특성화가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중육성 부족

또한 한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는 지난달 6월 본교가 제출한 교육개혁 우수대학 재정신청서를 보면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를 3단계로 나누어 △1단계(96~98)=불교학 · 정보통신정분야 등 8분야 △2단계(99~01)=영상정보통신분야 · 관광경영분야 등 3분야 △3단계(02~05)=문화컨텐츠산업 분야로 선정했다. 즉 2개년 단위로 개편될 때마다 특성화 분야 항목이 매번 바뀌어 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단과대마다 관련 분야가 특성화로 꼽히기 바라는 '단과대 이기주의'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교육개혁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 분야를 선택할 때 자신이 속한 단과대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평선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보다 각 대학이 한 번씩은 특성화 분야에 뽑혀 조금씩 지원 받게 되고 장기적 계획이 전무할 수밖에 없었다.

홍익대의 경우 미술학과 대부분이 대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애니메이션 분야에 일치시켜 집중 육성한 결과 교육개혁 특성화 부문에서 수상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단과대가 제시한 특성화 방안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있다. 발전계획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부제를 통한 학제개편 · 대학원 발전과 시설 확충 등을 특성화 방안으로 내놓았을 뿐이다.

특성화 부분 합의돼야

앞으로 본교가 교육의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분야를 특성화시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각 단과대가 개별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보다 모든 단과대가 모여 각자의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공통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 비로소 특성화로 선택된 분야만 혜택을 누린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특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학부제 및 모집단위광역화

95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5 · 31 교육개혁'에 포함된 학부제 · 모집단위 광역화에 본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송 총장은 94년 부총장 시절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학부제 도입 준비를 하며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타대학보다 학부제 도입을 서둘렀다.

당시 교수 · 학생은 전공교육 약화, 준비부족 등을 내세우며 학부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으나 학교는 "학과 통합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 결국 전공기초과목 약화 · 학부통합 기초 교양과목 부족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속출할 때마다 학교는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해 하며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학부제에 끌려가는 꼴이 됐다.

AA(Academic Advice)제도의 도입 무산, 빈번한 학제개편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선진(수교 02졸) 99년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은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가 시행되는 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학부제에 맞는 커리큘럼 부재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본교가 학부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의욕을 갖고 변화를 추구했지만 학부제 목적에 맞는 커리큘럼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성급히 도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입 자체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공대의 한 교수는 또한 "교수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강좌가 폐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변화에 소극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결국 학부제에 맞게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전공이수학점만 낮아져 전공과목 교육이 부실하게 됐다.

학부제에 이어 송 총장은 다시 지난 2000년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21학부 17개 학과를 12대학 9개 학과로 통합하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 신입생을 전공경쟁으로 내모는 장본인이 되어 있다.

'제2의 입시' 경쟁

무분별한 학부 통합은 학생들이 인기학과로 편중되는 현상을 초래해 경쟁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로써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신입생들의 전공선택 경쟁은 치열해지고 반대로 기초학문의 경우 지원이 저조해 존폐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지난 2000년 학생들의 전공신청에서 나타난 전자공학 92.7%, 전기공학 7.3%의 지원율은 대표적 사례이다.

학부제 도입 당시 학교측이 발표한 "학생들의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점차 범위를 완화시켜 3~5년 후 학생들의 희망이 완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오히려 학과 당 최대 수용인원을 150%에서 120%로 하향 조정해 선택의 폭을 축소했다.

또한 충분한 논의 없이 실시된 학과 통합은 학제가 개편될 때마다 일부 학과가 통합 · 분리를 반복하는 현상을 야기하기도 했다.

학부제와 모집단위광역화로 대변되는 송 총장 재임기간의 교육개혁은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나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본교는 그동안 진행된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교육개혁내실위원회를 발족해 보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교육개혁은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부권(교육학) 교수는 "이젠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부제 · 모집단위 광역화 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사설

합의 전제된 준비위 되어야

본교 의대 · 한의대 부속 불교병원(이하 불교병원)이 준공식을 치른지도 꼬박 한 달이 지났다. 그간 이사회에서는 '불교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내실 있는 논의'를 이유로 불교병원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영배스님, 이하 준비위)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불교병원 개원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준비위는 또 다른 소모전을 치르고 있다. 1차 회의에서 현 오녹원 이사장의 불참과 송석구 총장의 사퇴, 규정에서 보여진 준비위의 성격에 대한 논란 등이 그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사태는 총장 사퇴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준비위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준비위가 임기 말, 송 총장의 핵심 사업이었던 불교병원이 차기 총장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원과 병원장 선임을 위한 정관개정이나 준비위의 위상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만을 합의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준비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의 위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말이다. 더욱이 이러한 준비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규정안이 1차 회의 때 속전속결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또한 규정대로라면 준비위는 불교병원의 재정부터 인사, 기획까지 모든 기능을 총망라하는 권한을 가진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통과될 경우, 이사장과 총장은 불교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준비위에 위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병원의 설립까지 주도적 역할을 해온 학교가 개원준비에서 제외되고 준비위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성역'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준비위 역시 과거 행태와 다를 바 없이 불교병원에 대한 밀실행정과 독단적 결정구조라는 문제를 안게 될 것이 뻔하다.

준비위 자체는 불교병원의 정상 개원을 위한 주체를 설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무조건적 구성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독단적이고 논의 없는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충분히 경험했다. 준비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준비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위에서 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만이 학내 제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개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 행 인 송석구
편집인겸주간 유흔우
부 주 간 장영길
편 집 국 장 류변성
편 집 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가시적 팽창 컸지만 '질'은 "글쎄…"

제3캠퍼스 이전 · 중앙도서관 공간배치 논의 과제로 남아

지난 99년 완공한 정보문화관(오른쪽)과 상록원(왼쪽).

◈ 물적 환경

"오늘의 동국은 양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송석구 총장이 지난 95년 취임 초기 했던 말이다. 당시 그는 '양적 발전'의 첫 번째 단계로 제3 캠퍼스 건립을 꼽았다. 제한된 부지에 골머리를 앓던 서울캠에 공간의 '양'을 확충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 3캠퍼스 건립문제가 불교병원건립추진으로 인해 늦춰지면서 송 총장은 공간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갔다. 96년 학술문화관을 시작으로 정보문화관(99년), 상록원(99년), 혜화 별관(2000년) 등 10여 개의 건물을 좁은 부지 내에 신 · 증축하면서 좁은 교지내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늘렸다.

그러나 '공간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건물 증축에 비해 학생 1인당 면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 1인당 교육기본면적을 나타내는 '교사율'을 살펴보면, 2001년까지 서울 · 경주 전체 교사율이 약 8%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약 1~1.6 ㎡의 면적을 새로 얻은 셈이지만, 여전히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1인당 면적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편입학 정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공간이용자가 늘어난데다 공간 중 상당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문제가 심각한 동국관의 경우 경영대학의 강의실이 있던 자리에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다.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기본교육면적이 턱없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점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간이 부족하기는 경주캠도 마찬가지다. 교지가 서울캠보다 훨씬 넓은 데도 강의실당 집중도가 훨씬 심해 기본교육공간이 교지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건물 내부의 공간상황도 열악하다. 특히 도서관 열람석 보유율이 낮은 편이다. 도서관 열람석당 학생수 비율은 서울캠은 5.6명, 경주캠은 4.0명으로 본교와 비슷한 학생정원을 가진 타대학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에는 한 개의 열람석에 학생 8명 꼴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열람석 수가 가장 열악한 10개 대학 안에 들기도 했다. 앞으로 도서신관이 개관되고 구도서관 리모델링을 거치면 도서관, 강의실 등 내부공간 문제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교육공간 내부 시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교수 · 학생들은 96년 전체 강의실에 실시했던 냉 · 난방 공사와 영상수업 관련 설비공사를 대표적인 긍정적 사례로 꼽는다. PC와 컴퓨터실을 대폭 늘리고 학교 전체에 랜 설비 완료해 정보화를 구축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는 부분이다.

실습지원상황은 97년을 기점으로 크게 호전됐다. 그 해부터 '실습기자재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실시해 매년 15억씩 교비를 집중 지원한 것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송 총장이 8년 동안 꾸준히 지속해온 사업이 있다. 바로 정보문화관, 계산관 휴게공간 등 휴게공간 조성사업이다.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이 사업은, 당시에는 '보여주기'식 공사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이제 남은 문제는 서울캠 공간문제의 '마지막' 해결 방법으로 제시돼 온 3캠퍼스 건립 및 이전논의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후 공간배치와 관련한 논의다. 두 사안 모두 공개논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각 주체의 입장이 첨예한 상태다. 중요한 것은 양적인 발전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길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상호간 논의의 과정을 거칠 때에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 교원지원

교원확보율은 지난 8년 간 꾸준한 오름세나 내림세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94년부터 7년 사이 약 1.5% 줄었으며 특히 서울캠의 경우 지난해와 2000년도에 교원 확보율이 연이어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의 어느 교수는 "학교가 최근 몇 년동안 긴축재정을 지향해 교원임용을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3년 간 채용 교원인원은 1994년부터 3년 간 채용 교원인원에 비해 30% 이상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간강사 강의비율은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캠은 94년 7년간 약 3%, 경주캠은 0.9%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교양과정의 경우 의존도가 더욱 심하다. 절반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95년에는 71%를 기록했다.

교원확보율이 하락하는 것은 신규 교원의 채용이 부족했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채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교수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이용 교수방법 등 시대변화에 맞춰 교원의 교수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편이다.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박명희(가정교육) 교수는 "학교교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원들이 필요해 몇 번씩 유급 연구원 신청 등을 해보았으나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송윤경기자
itsJ@dongguk.edu

<표1> 교원확보율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서울캠	62.7	61.9	64.3	62.4	61.6	60.3	61.1
경주캠	68.2	67.8	69.3	68.6	66.2	67.7	73.4
전체 계	65.2	64.6	66.5	65.1	63.7	63.6	66.4

<표2> 시간강사 강의담당 현황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서울캠	37.8	43.2	34.6	38.7	37.7	37.7	40.2
경주캠	42.9	37.5	36.5	45.2	44.8	38.8	42.1
전체 계	37.9	40.9	35.3	41.5	40.9	38.2	41.0

동악로

일보 후퇴

"저기 공고 좀 봐! 선거 일정이 다시 연기됐어."

"선거 날짜가 그렇게 오락가락 해도 돼?"

선거 일정을 알리는 공고를 보던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갑자기 변경된 선거일정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석중 · 수교4 이하 중앙선관위)는 예년보다 선거 일정을 앞당겼다가 다시 한 주를 늦춘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선거는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말고사 한 주 전에 진행돼 왔다. 같은 이유로 수업일수가 15주로 줄어들자 선거일정 역시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선거를 위해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하자 앞당긴 일정은 삐걱대기 시작했다.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자료집이 예정보다 늦게 발행되는가 하면, 전체일정을 결정할 때 단과대 자체 일정을 고려치 않아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선거 일정을 한 주 늦춘다는 시정공고를 낸 것이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지 꽤 됐는데 후보자 얼굴은 볼 수도 없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후보자들의 사진이 담긴 필름을 담당 업체에서 분실해 공보가 늦어지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준비상황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일정만 조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장학금 문제로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총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부가 실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선거는 학생들의 대표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절차다. 이러한 중요성에 걸맞게 앞으로 선거 관련 사안을 다룰 때 보다 신중을 기하길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진보진영의 선택과 전략' 토론회

비판적 지지론, 2002 대선에도 유효한가

노사모 · 민노당 · 사회당 참여 … '우리 후보는 다르다' 격론 펼쳐

엄태규 기자

지난 23일 열린 '진보진영의 선택과 전략'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본교 강정구 교수가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2002년 대선이 두달이 채 남지 않았다.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도 선거에 대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노무현 비판적 지지론'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노동당, 사회당은 각 당의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선출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대선과 진보진영의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지난 23일 본교 문화관 세미나실에서는 대학원 총학생회 주최로 '2002 선택! 진보진영의 선택과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재영 정책국장, 사회당 오창엽 인터넷위원회 위원장,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노사모) 김진향 회원이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노무현 신 비판적 지지론인가 진보정당 독자후보론인가'였다. 이에 민노당 이재영 정책국장은 비판적 지지론을 토론회의 주제로 삼은 것을 비판하며 "예전의 낡은 세계관이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선 때마다 나온 비판적 지지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모 김진향 회원 역시 "민노당과 노무현은 엄연히 갈 길이 다른 만큼 함께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정당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비판적 지지에 관한 논쟁은 패널들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아 쉽게 정리가 되는 듯한 모습이었다. 오창엽 위원장은 "최근 노 후보의 지지율이 3위에 머물러 비판적 지지의 당위성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지 토론의 흐름이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토론자들은 상대진영 후보를 비판하고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를 다른 후보와 차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노당 이재영 정책국장은 "일부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며 노무현만이 대안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 두 후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개인이 아무리 개혁적이더라도 정치자금의 99.6%를 재벌에게 지원받는 정당의 후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사모 김진향 회원은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창당작업을 벌이고 있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예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개혁적 국민정당은 3만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매달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는 아래로부터의 정당"이라며 "새로운 정치실험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주제토론 이후 진행된 청중 질의시간에는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진보정당이 존립기반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노당 이재영 정책국장은 "김대중 정권 이후 구속된 노동자수가 김영삼 정권 때보다 많다"며 "노 후보가 집권한다고 해서 진보정당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당 오창엽 인터넷 위원회 위원장 역시 "87년 6월항쟁 이후 예전처럼 정권이 반민주적인 행위를 함부로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말말말

토론회에서 청중들의 주목을 받았던 발언들을 정리했다.

노사모 김진향

▶우리들은 노무현을 '비판적 지지'가 아닌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 토론회 주제를 문제삼으며.

▶민노당, 사회당을 설득할 시간이 있으면 정치적 무관심층들을 공략하겠다.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진보정당 후보의 출마가 노 후보의 득표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질문에 답하며.

민노당 이재영

▶비판적 지지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뇌기능 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 사회자가 비판적 지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자.

▶노 후보로의 단일화를 제안하자, 지지율 3, 4등끼리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답했다. - 얼마 전 개혁적 국민정당의 유시민 씨와 토론회에서 만났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며.

사회당 오창엽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공약이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데, 두 후보가 단일화하고 좌파진영은 사회당에 투표하면 되지 않겠는가. - 비판적 지지논쟁에서 제외돼 있는 사회당도 주목해야 한다며.

▶노무현이 당선되기를 바란다.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후 그랬던 것처럼 노무현에게 품은 환상이 집권 이후 사라지면 결국 사회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노무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기대를 깨뜨려야 한다며.

'2030유권자네트워크' 상임위원장 박홍근 씨를 만나

"젊은세대 정치참여 높이기 위해 주력할 것"

대선의 계절이 다가왔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30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여전하다.

지난 22일 한국청년연합회, 대학언론인운동본부 등 청년 · 대학생 단체들은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2030유권자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에 2030유권자네트워크의 상임집행위원장 박홍근 씨를 만나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2030유권자네트워크를 출범시킨 이유는.

= 다수의 20,30대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젖어 있다. '열심히 욕한 당신, 이젠 찍어라'라는 우리의 기치는 비판만 할 뿐 실제 정치참여에는 소극적인 이런 냉소주의적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 단체는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높인다는 목적을 갖고 출범했다.

- 지난 16대 총선 때의 유권자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 당시는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중심을 이뤘다. 하지만 이번 청년유권자운동은 특정후보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배제하고, 대신 젊은층의 정치적 관심을 끌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20,30대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중인지.

=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음달 30일 '2002 Vote Festival'을 개최한다. 윤도현, 장나라 등 연예인의 공연과, 영화제, 토론회도 함께 하는 이 대회를 통해 선거와 재미를 융합시키려고 노력중이다. 또한 인터넷과 방송, 대학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공동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00만 청년유권자 투표참여 서약운동을 펼치고, 청년층이 원하는 정책을 설문조사 한 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표율 상승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 또는 제안할 생각이다.

-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 하려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안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투표하기 힘든 환경에 처한 부재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재자를 위해 전국 각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중앙선관위에 요청할 것이다. 또한 투표연령 만 18세로 인하, 선거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역시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들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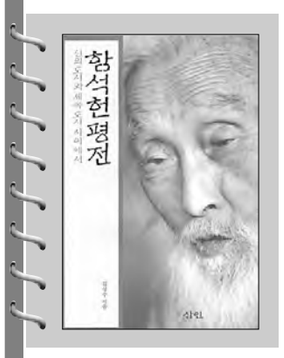
캠퍼스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진행했던 이 운동은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연령 낮추기 운동과 더불어 선거개혁 2대 운동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부재자 투표소 운동에 주목한 이유는 지방출신 부재자 대학생들이 '대학생 미투표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약 60여 만명으로 후보자의 당락까지 좌우할 수 있지만 투표율은 늘 한 자릿수에 그쳐왔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투표를 이끌어내면 상당한 정치적 폭발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대학생투표참여운동본부는 다음달 말까지 부재자 투표소 설치 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려면 다음 달 25일까지 약 2천명 이상의 부재자 대학생들이 투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12월까지 각 대학총장 명의의 협조 공문도 선관위에 보내야 한다. 지난 2000년 4.13총선 때에는 부재자 2천명의 신청을 채우지 못했다.

평전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그린다

함석헌 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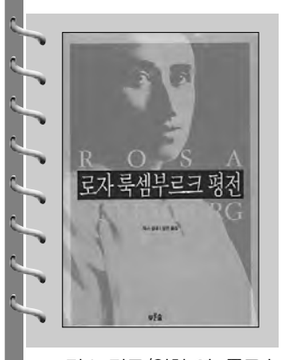
김성수, 삼인

이 책은 함석헌의 생애사적 전기라기보다 사회사적 전기에 가깝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상황에 따른 사상적 변이에 초점을 맞춰 서술된 평전이다.

'한국의 간디' '종교 다원주의의 선구자' 등으로 불리며 때로는 종교 사상가, 때로는 인권 운동가, 또 때로는 언론인이 되기도 했던 함석헌. 그는 기독교 유교 불교와 관련된 글을 쓰고 강연을 했고,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에 거리낌없이 나섰으며, '씨알의 소리'를 창간했다.

이 책은 함석헌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기존의 해석이나 평가에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그의 사상과 행적에 대한 재고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한다. 그리고 그의 사상, 혹은 종교 사상의 변이를 그가 살았던 조선과 남북의 정치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웠던 '함석헌 사상'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를 돕는다.

로자 룩셈부르크 평전



막스 갈로/임헌 역, 푸른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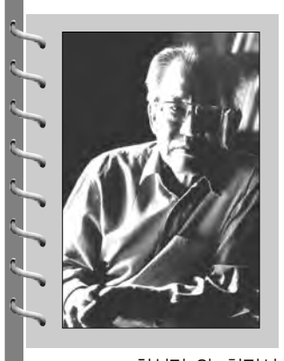
'자유, 그것은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폴란드계 유태인으로 독일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여류 혁명가이자 정치경제학자이다. 여성인데다, 절름발이라는 장애가 있었음에도 자기 고민과 학습을 반복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체득, 분석해 사회주의 이론의 격을 한 단계 높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로자의 인간적 고뇌, 예술과 자연에 대한 경외를 포착해내면서, 그의 사상이 결코 휴머니즘이나 자유와 괴리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여류혁명가 안에 감추어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의를 잃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도 자세히 그려내고 있다.

혁명과 전쟁의 시대를 짊어진 로자에게서 막막한 시대를 이겨내는 정신과 삶과 인간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윤이상의 음악세계



최성만 외, 한길사

이 책은 독일로 망명한 뒤 정치적 압박으로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했던 한국의 음악가 윤이상의 삶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평전이다. 한국·독일·일본의 작가, 언론인, 음악가 등이 필진으로 참여해 그의 삶과 민족관, 예술세계와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던 윤이상의 음악세계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나의 음악은 역사적으로는 내 조국의 모든 예술적·철학적·미학적 전통에서 생겼고, 사회적으로는 내 조국의 불행한 운명과 민족·민권 질서의 파괴, 국가권력의 횡포에 자극을 받아 음악이 가져야 할 격조와 순도의 한계 안에서 가능한 최대의 표현적 언어를 구사하려 노력한 것이다."

또한 윤이상의 총 작품목록, 출판된 음반목록들이 실려 있어 그의 음악을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책이다.

한보라 기자

평전은 평(評)과 전(傳)의 합성어이다. 평은 본시 사관이 군신의 언행을 평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전은 역사 서술의 방법으로서 본받고 기릴만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평이라는 말에는 평가의 노력이 스며 있으며, 그 평가를 위한 나름의 관점이 서 있음을 의미하고, 전은 인물의 행적에 대해 흠모하고 기리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좀더 거칠어지는 것이 허락된다면 평은 인물을 '읽는' 것이며, 전은 인물의 행적을 '쓰는' 것이다. 이처럼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둘의 관계는 지극히 상호보완적이다. 읽으려는 노력(評)은 그 대상과 기리려는 행위(傳)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려야할 것은 그것을 읽고 있는 시공간적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까닭이다.

최근 평전이 봇물이다. 이같은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못내 아쉬운 것은 단지 평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후기 자본주의의 호명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지금 이곳'에서 출판의 상업화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며, 오히려 그런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너그러워질 수도 있다.

이 지독한 시대에 체 게바라를 읽고, 스콧 니어링의 생애를 조감하고, 로자 룩셈부르크의 삶을 따라가 보는 것은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소박하지만은 않다. 평이 지금 이곳의 시공간적 특수성을 전제로 한 읽기라고 할 때, 평전의 대상과 집필진이 대부분 외국에 편중되어 있는 최근의 경향은 자칫 평전을 역사적인 진공 상태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이 이미 신화가 되어버린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맥락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실적인 가치의 탈각은 그것을 한낱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시대를 절실하게 앓았고 그 절실함만큼 진실했기에 기려지는 인물들이 지금 이곳의 절실한 요구와 무관하게 읽혀지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것은 오히려 평전의 인물과 독자들의 무의식적인 이격감만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단지 유홍준의 '완당 평전', 최하림의 '김수영 평전', 허만하의 '청마풍경', 김태호·최인호의 '박종철 평전',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 등과 같은 성실하면서도 개성적인 평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평전을 읽기 시작했고, 평전이 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평전을 읽는다는 것은 기릴만한 인물들을 통해 지금 이곳을 읽으려는 노력이며, 평전을 쓴다는 것은 그 인물을 통해 지금 이곳의 지배적 담론의 정당성을 묻는 행위인 까닭이다.

> *평전이 읽히는 시대는*
> *아직 성찰하고 있는 시대다*
> *또한 평전을 쓸 수 있는 사회는*
> *문화의 다양한 역량이*
> *축적되어 있는 사회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전보다는 소설에 가까운 김훈의 '칼의 노래'는 이채롭다. '칼의 노래'는 이광수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나 박정희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이순신을 성웅이 아닌 인간으로 되돌려 놓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훈의 주술과 같은 아름다운 문체도 한 몫을 했지만, 그것은 인간 이순신과 마주하려는 집요한 산문정신의 결과였다.

그와 같은 산문정신의 토대 위에서 권력의 문제, 실존의 문제, 죽음에 대한 공포, 부조리한 현실과 부득이 맞서야하는 문제 등의 끊임없는 의문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인간 이순신을 읽고, 지금 이곳의 우리 삶을 읽게 하는 것이다.

평전이 읽히는 시대는 아직 성찰하고 있는 시대다. 또한 평전을 쓸 수 있는 사회는 문화의 다양한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평전의 인물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쓰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다. 읽고 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결국 평전이 읽고 있는 우릴 읽는 것이다.

박 기 수
문학평론가 ·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21세기 지식인 사전

환경연구가 레스터 브라운(Laster R. Brown)

1984년 이후 매년 출판되며 생태계의 위험을 학문적으로 분석해 그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는 '지구환경보고서'. 수치 자료들을 재구성한 도표로 환경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생명신호(Vital Signs)'.

이 두 출판물은 그 내용이 전세계적으로 회자되며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세계적인 환경연구기관인 월드워치연구소에서, 레스터 브라운(Laster R. Brown·69)이라는 환경연구가에 의해 출간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34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난 레스터 브라운은 55년 럿거스대 농업과학과를 졸업하고, 59년에는 메릴랜드대에서 농업경제학, 62년에는 하버드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74년 월드워치 연구소를 설립한 브라운은 현재까지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는 오존층 고갈, 기후 변화, 종다양성 파괴 등 소위 지구환경문제는 물론이고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질·대기·토양오염 등 국내환경문제도 세계 에너지 수급방향, 국제 무역질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그는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로 평가되고 있다.

유지나 교수의 한국영화사 (4)

친일 영화인, 해방영화의 선봉?

너무 들은 나머지 식상해져 차라리 잊어버리고픈 말들이 있다. 철새정치인, 변절자의 출세, 일제잔재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오욕의 역사….

서로 맥락이 다르지만 이런 말들은 정치의 계절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성취한 해방정국과 곧 이어 미군정으로 이어지는 1940년대 중반과 5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영화사를 들여다 보노라면 이 식상해져버린 말들을 새삼 끄집어 내가면서 아픔과 실망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는 희망에서 절망과 또 다른 종속으로의 길을 보여준다. 일제로부터 놓여난 한반도는 이제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작업을 해나간다.

해방 후 3일 안에 만든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문학, 미술, 영화 등 여러 개의 분과를 두고 해방정국의 문화예술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그 분과조직으로 '조선영화건설본부'가 설립되어 초기에는 카프계 좌파영화인들이 주도한다. 그러나 친일영화인들이 개입되고 미군정의 영향으로 친일보다 반공이 더 문제가 되는 정치상황이 영화인 조직에도 작용한다.

좌우파의 대립은 영화인 조직에도 벌어진다. 카프정신을 계승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영화동맹'이 설립되지만 결국 한 달 안에 '조선영화동맹'이란 단체에 통합되고 좌파영화인들은 남한에서 입지를 잃게 된다.

이런 와중에 해방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만든 최인규 감독은 주목할 만한 문제적 인물이다. 일제가 대동아 전쟁을 기해 황국신민영화를 선전선동용으로 유도했을 시기(1938-1945) 최인규 감독은 '가미가제의 아들들'(1945)을 비롯하여 도합 5편의 영화를 연출해서 친일영화 최다작을 기록한 일제가 선호한 인물이다.

프랑스 영화사학자 제라르 베통은 이 시기 조선의 영화제작은 거의 없었고 1937년부터 민족주의 사상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고 진단한다.

이런 전력을 가진 최인규는 해방 후 혼란스런 정국에서 우파친일영화인이 주도하는 영화세력을 등에 업고 가장 빨리 해방영화 '자유만세'를 1946년 발표한다.

일제에 투쟁한 독립투사를 기리는 이 영화는 최인규의 친일경력을 지우는 면죄부용이 되었고, 그걸 용납한 한국사회와 영화계는 미군정 하에서 전쟁을 겪으며 리버티뉴스나 계몽, 반공성이 짙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굴욕과 변절의 수용을 거쳐 한국영화는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전반 제1차 황금기를 구가하다가 다시 유신독재의 압박과 당근정책에 정신을 내주기도 한다.

결국 한 나라의 영화사는 그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앞서가기 힘들다는 점을 한국영화사는 증명해준다.

전자불전연구소 세미나

- 한글대장경의 성립과 전개 -

1. 세미나 개최 의의

우리나라에서 한문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역경사업은 조선시대 간경도감의 역경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일제시대 백용성스님이 조직한 삼장역회의 역경사업,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역경사업,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에서 수행중인 한글대장경 전산화사업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대장경의 한글역경은 단순한 번역작업이 아니라, 불교사상의 한국적 토착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대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한글대장경의 성립과 전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정리하고, 미래에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일 시 : 2002년 10월 31일 (목) 오후 2시

3. 장 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4. 주 제 : 한글대장경의 성립과 전개

5. 발 표 :
- ▶ 김무봉 교수 (동국대학교) 조선시대 간경도감의 역경사업
- ▶ 한보광 스님 (동국대학교) 일제시대 삼장역회의 성립과 역할
- ▶ 김은중 박사 (연세대학교) 한글대장경 간행의 의의와 과제
- ▶ 이금석 교수 (동국대학교)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 김재성 연구원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 전산화 현황
  -고려·신수 전산본 일자대조 보고를 중심으로-

6. 종합 토론
- ▶ 사회 : 박경준 교수 (동국대학교)
- ▶ 토론 : 홍영식 교수 (동국대학교)
  허인섭 교수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이유기 교수 (상명대 인문과학연구소)
  김광식 박사 (대각사상연구원)
  최철환 부장 (동국대 역경원)

7. 문 의 : 전자불전연구소 ☎ (02)2260-3504 홈페이지: http://ebti.dongguk.ac.kr/

전 자 불 전 연 구 소

2002학년도 제2학기 명사초청특강

참다운 종교(宗敎)란 무엇인가?

▣ 일 시 : 2002. 11. 13.(수) 오후4시~7시
▣ 장 소 : 본관 중강당
▣ 강 사 : 현각 스님

주요약력
- ▶ 1964년 미국 뉴저지주의 천주교 집안에서 출생
- ▶ 미국 예일대학에서 철학 및 문학 전공
-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및 미국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철학 전공
- ▶ 1992년 9월 7일 출가
- ▶ 미국 소재 한국 禪불교 본부 「흥법원」 주지
- ▶ 경북 영주 소재 「현정사」 주지

주요저(역)서
- ▶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1999, 열림원)
- ▶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 (2001, 열림원)

학 생 처

총학생회와 학교는 오는 31일 '등록금책정협의회(이하 등책협)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갖기로 했다.

사실 등책협 구성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다. 뿐만 아니라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협의체의 존재여부는 학내 민주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음에도 본교는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 보다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준비 모임'이 지닌 의미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등책협 구성의 실질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사 기획부는 등책협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등책협의 바람직한 상을 그려본다.

편집자

등록금

등책협, '불협화음' 막는 민주적인 '조화'의 과정

신중한 태도로 논의에만 그치는 시행착오 반복하지 말아야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대다수 대학에서는 등록금 때문에 홍역을 치른다. 학교에서 책정한 등록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회의 등록금 투쟁이나 이와 관련한 학원자주화 투쟁은 이제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회의 갈등이 단순한 '불협화음'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학내 민주화 정도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학생참여 배제된 학교 운영

실제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상당수의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왔다. 지난달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4개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률이 61%를 넘어서는 반면 재단 전입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대학이 본연의 역할인 교육보다 '몸집 불리기'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 4월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30여 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4개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교육여건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면서도 등록금 책정과 예·결산 심의나 조정에 학생 참여는 배제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학생을 무조건적인 수용자로 볼 뿐, 논의 주체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본교 학생회 역시 대학의 민주화, 자주화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를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내 민주화 요구의 과정

현재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와 학교가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등록금책정협의회(이하 등책협)'는 90년대 초반 이후 매년 등록금 협의(이하 등협)가 진행될 때마다 불거져 나왔던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실제로 92년에는 등책협 구성이 동국발전협의회 구성과 함께 등협을 통해 합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에 이르지 못한 채 문서상에서 그쳤다. 이후 등책협 등 학생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학생회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99년에는 직원, 교수, 학생 등 학내 주체가 전반적인 학내 현안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구성하자는 총학생회의 제안에 학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학생 참여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운영위를 감시기구로 국한시키려 했던 학교와 의결·집행기구로 제시했던 총학생회의 입장차이로 결국 운영위 구성은 실현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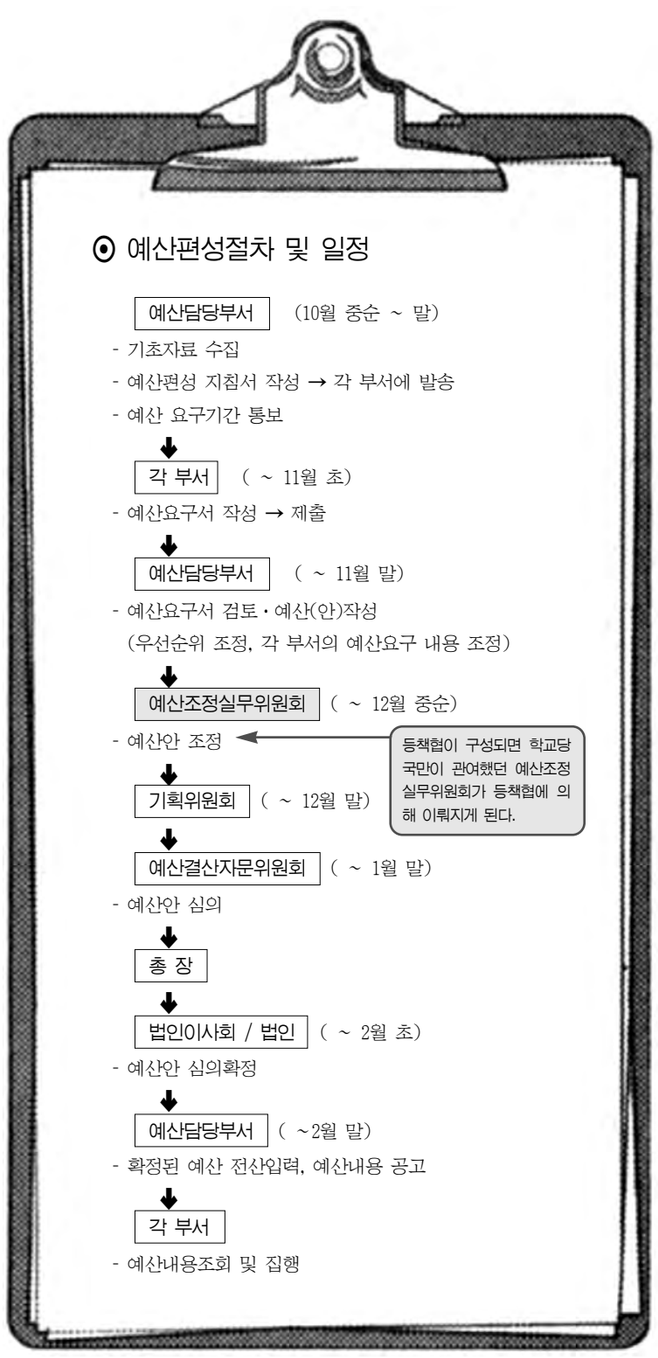
등책협의 의의와 필요성

따라서 '등책협 구성을 위한 준비 모임'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등책협은 학생, 교수, 직원 3주체가 함께 하는 협의체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조정,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하는 협의기구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등책협의 구체적인 역할은 초안의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조정, 등록금을 확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그동안 학내 민주화 요구로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학생 참여의 실질적인 장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관계자는 "등책협이 구성되면 그동안 형식적이던 등록금 협의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책정된 등록금을 무조건 수용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직접 책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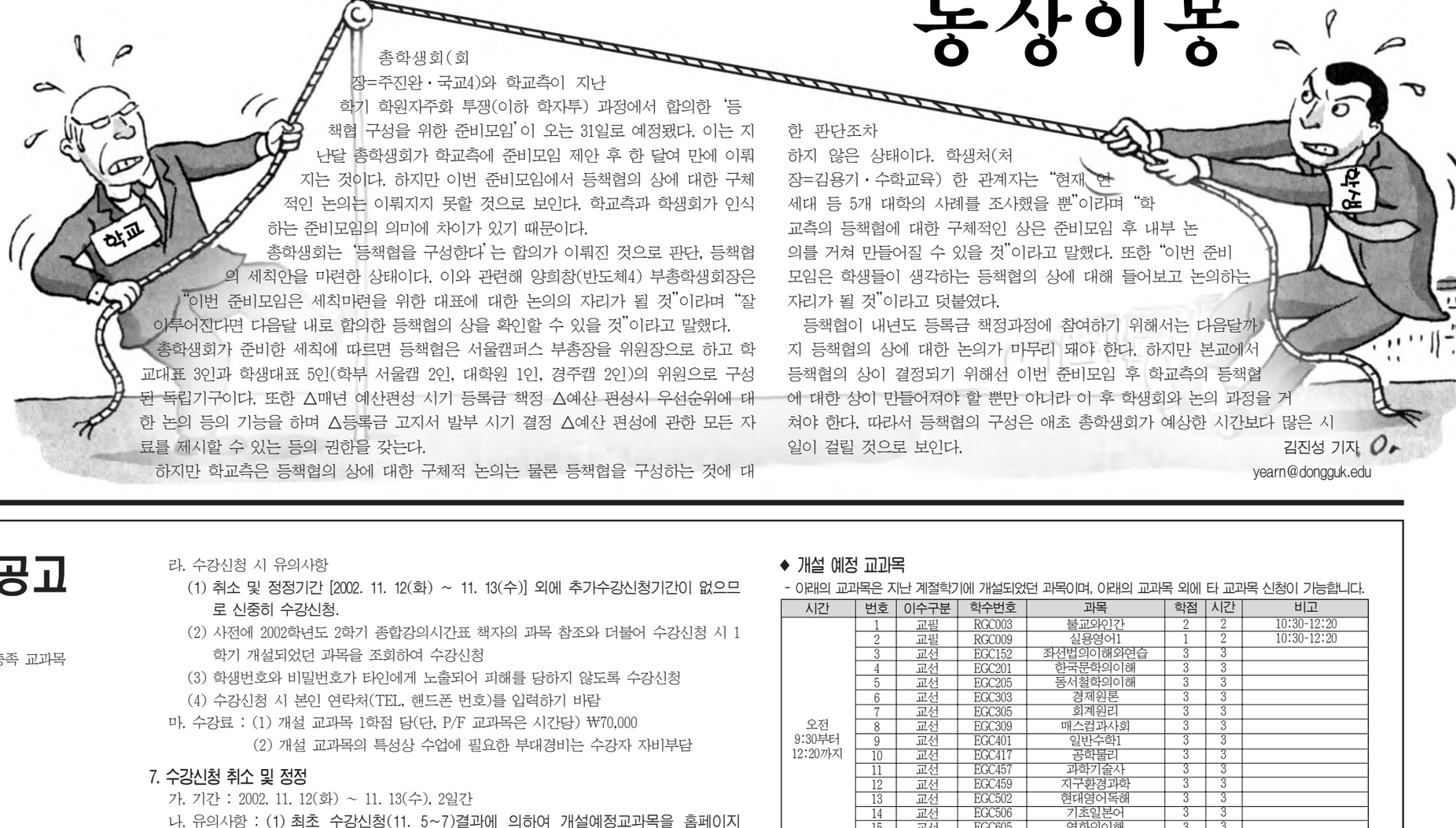
따라서 학교와 총학생회는 등책협이 논의에 그쳤던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로 충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민주적 협의체로서의 등책협은 학내 민주화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본교의 등책협 준비현황

학교와 학생의 동상이몽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와 학교측이 지난 학기 학원자주화 투쟁(이하 학자투) 과정에서 합의한 '등책협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이는 지난달 총학생회가 학교측에 준비모임 제안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준비모임에서 등책협의 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과 학생회가 인식하는 준비모임의 의미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등책협을 구성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등책협의 세칙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이번 준비모임은 세칙마련을 위한 대표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잘 이루어진다면 다음달 내로 합의한 등책협의 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준비한 세칙에 따르면 등책협은 서울캠퍼스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대표 3인과 학생대표 5인(학부 서울캠 2인, 대학원 1인, 경주캠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이다. 또한 △매년 예산편성 시기 등록금 책정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등의 기능을 하며 △등록금 고지서 발부 시기 결정 △예산 편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학교측은 등책협의 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물론 등책협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한 관계자는 "현재 연세대 등 5개 대학의 사례를 조사했을 뿐"이라며 "학교측의 등책협에 대한 구체적인 상은 준비모임 후 내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준비모임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등책협의 상에 대해 들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책협이 내년도 등록금 책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달까지 등책협의 상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 하지만 본교에서 등책협의 상이 결정되기 위해선 이번 준비모임 후 학교측의 등책협에 대한 상이 만들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후 학생회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등책협의 구성은 애초 총학생회가 예상한 시간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200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공고

1. 개설대상 교과목
2002학년도 1학기·2학기 개설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개설요건 충족 교과목
(단, 실험·실습 및 사이버강좌 제외)

2. 수업일정
가. 운영기간 : 2002. 12. 9(월) ~ 2002. 12. 31(화)
단, 매주 토요일·일요일, 12. 19(대선), 25(성탄절)은 수업 미실시
나. 스키(2박 3일) - 12. 12(목) ~ 14(토)

3. 강좌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직과목 : 7명 이상 나. 교양과목 : 10명 이상

4.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 : 200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생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 시 반영됨
다.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교과목명이 다른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재수강신청원(홈페이지-학사행정-양식함에서 출력가능)을 반드시 소속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목명이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처리 가능

6. 수강신청
가. 기간 : 2002. 11. 5(화) ~ 11. 7(목), 3일간
나. 수강신청 시간 및 장소
▶ 서울캠퍼스
(1) 일시 : 11. 5(화) 오전 09:00 부터 11. 7(목) 24:00까지
(2) 장소 : 교내 자유 실습실
▶ 경주캠퍼스
(1) 일시 : 11. 26(화)·27(수)·28(목)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2) 장소 :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다.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기간에 교내PC실이나 외부에서 접속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02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7쪽 참조
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취소 및 정정기간 [2002. 11. 12(화) ~ 11. 13(수)] 외에 추가수강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신중히 수강신청.
(2) 사전에 2002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의 과목 참조와 더불어 수강신청 시 1학기 개설되었던 과목을 조회하여 수강신청
(3) 학생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4) 수강신청 시 본인 연락처(TEL,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기 바람
마. 수강료 : (1) 개설 교과목 1학점 당(단, P/F 교과목은 시간당) ₩70,000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비부담

7.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
가. 기간 : 2002. 11. 12(화) ~ 11. 13(수), 2일간
나. 유의사항 : (1) 최초 수강신청(11. 5~7)결과에 의하여 개설예정교과목을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반드시 폐강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및 정정 바람
(2) 6학점 이내에서 추가수강신청이 가능함

8. 수강신청 장소

건물명	실습실명	개방시간
명진관2층	A2	09: 00 - 22: 30
동국관M동 1층	Cyberland	09: 00 - 22: 30
	BSC7	09: 00 - 22: 30
동국관M동 5층	BSC10	09: 00 - 22: 30
정보문화관P동 5층	ESC4	09: 00 - 22: 30
정보문화관P동 2층	ESC5	09: 00 - 22: 30
학림관 3층	JE	09: 00 - 22: 30
중앙도서관 1층	정보검색실	09: 00 - 17: 00
혜화관 2층	CAMPUS#	09: 00 - 22: 00

9.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발표 : 2002. 11. 26(화) 예정

10. 수업료 납부
가. 기간 : 2002. 11. 18(월) ~ 11. 22(목), 5일간.
나. 방법 : (1) 고지서 출력 :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수납은행 : 제일은행 전 지점
(수납모점: 제일은행 동국대 출장소 Tel. 02-2260-8990)
다. 유의사항
(1)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공고 (11월 26일 공고 예정)를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어 폐강된 경우 학사지원실(2260-3043)로 문의 바람

◆ 개설 예정 교과목
- 아래의 교과목은 지난 계절학기에 개설되었던 과목이며, 아래의 교과목 외에 타 교과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	번호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목	학점	시간	비고
오전 9:30부터 12:20까지	1	교필	RGC003	불교와인간	2	2	10:30-12:20
	2	교필	RGC009	실용영어1	1	2	10:30-12:20
	3	교선	EGC152	좌선법의이해와연습	3	3	
	4	교선	EGC201	한국문학의이해	3	3	
	5	교선	EGC205	동서철학의이해	3	3	
	6	교선	EGC303	경제원론	3	3	
	7	교선	EGC305	회계원리	3	3	
	8	교선	EGC309	매스컴과사회	3	3	
	9	교선	EGC401	일반수학1	3	3	
	10	교선	EGC417	공학물리	3	3	
	11	교선	EGC457	과학기술사	3	3	
	12	교선	EGC459	지구환경과학	3	3	
	13	교선	EGC502	현대영어독해	3	3	
	14	교선	EGC506	기초일본어	3	3	
	15	교선	EGC605	영화의이해	3	3	
	16	교선	EGC675	인간행동의이해	3	3	
오후 13:00부터 15:50까지	1	교필	RGC001	자아와명상1	P/F	1	13:00-13:50
	2	교필	RGC004	국어작문의이론과실제	2	2	14:00-15:50
	3	교필	RGC006	컴퓨터활용과실습1	1	2	14:00-15:50
	4	교필	RGC007	영어회화1	1	2	14:00-15:50
	5	교선	EGC153	요가와자아탐구	3	3	
	6	교선	EGC207	한국사의이해	3	3	
	7	교선	EGC304	경영학원론	3	3	
	8	교선	EGC405	일반수학2	3	3	
	9	교선	EGC413	생물학개론	3	3	
	10	교선	EGC456	물리학개론	3	3	
	11	교선	EGC503	초급영어회화	3	3	
	12	교선	EGC514	초급한문	3	3	
	13	교선	EGC551	시사영어	3	3	
	14	교선	EGC602	소설의이해	3	3	
	15	교선	EGC620	한국사회의이해	3	3	
	16	교선	EGC670	현대사회와범죄	3	3	
야간 18:00부터 21:05까지	1	교필	RGC002	자아와명상2	P/F	1	18:45-19:30
	2	교필	RGC007	영어회화1	1	2	18:00-19:30
	3	교필	RGC008	영어회화2	1	2	19:35-21:05
	4	교필	RGC009	실용영어1	1	2	18:00-19:30
	5	교필	RGC010	실용영어2	1	2	19:35-21:05
	6	교필	RGC006	컴퓨터활용과실습1	1	2	18:00-19:30
	7	교필	RGC011	컴퓨터활용과실습2	1	2	19:35-21:05
	8	교선	EGC304	경영학원론	3	3	18:00-20:20
	9	교선	EGC305	회계원리	3	3	18:00-20:20
	10	교선	EGC551	시사영어	3	3	18:00-20:20
단기강좌	1	교선	EGC686	스 키	1		12. 12 ~ 14(2박 3일)

※ 수강신청 및 등록 결과로 강좌 개설 여부를 확정합니다. 단, 전공교과목은 강좌담당자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직필 및 전공 교과목의 경우 1학기에 개설된 과목인 경우 오전에 개설예정이며,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인 경우 오후에 개설예정입니다.
※ 단기코스 강좌의 일정은 수강신청 정정 전 수업시간표 공고 시 확인 바람.

교 무 처

책정 협의회

타대학 살펴보기

구성원간 벽 허무는 대학가

경영자·수요자 구분 대신 합의기구 구성 활발

최근 몇 년 사이 대학가에 등록금책정협의회와 같은 학교와 학생들의 합의기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건국대와 단국대가 지난해 등책협을 구성해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 것을 비롯해 한양대 등 몇 개 학교는 등책협을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이같은 타대학 사례를 통해 본교 등책협 구성시 주의점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등책협의 명확한 상 규정해야

대학마다 대학발전위원회, 등록금책정협의회, 등록금조절위원회 등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 기구가 학내 구성원의 참여 속에 학교의 예·결산을 공개하고, 학생이 등록금 책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민주적 합의기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협의체의 위상과 권한에 있어서는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국대의 경우, 자료제시 요구권, 관계자 출석 요구권, 위원에 대한 소집 발의권, 등록금 고지서 발부 시기를 결정하는 권한 등을 가지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비해 한국외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책정으로 고시하고 등록금이 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조항은 애초 기대했던 등록금책정위원회(이하 등책위)가 가지는 등록금 심의·의결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어 등책위가 복지사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올해 외대는 9차 등책위가 결렬되자 당시 임기 말이었던 조규철 총장이 위원장 권한을 부총장에게 위임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등책위의 실질적 권한 및 영향력이 대폭 축소돼 등책위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상태다.

이처럼 학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합의기구가 비슷한 성격을 띠지만 제대로 기능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등책협에 대한 명확한 '상'을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는가의 여부로 판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교 역시 학내에 민주적 합의기구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이 생각하는 등책협의 '상'을 좁혀 나가고 등책협 설치 시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도기를 넘어 정착단계로

지난해 정부는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시 학부모 및 학생과 반드시 합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규 개정을 추진했다가 사립대학들의 큰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등록금을 학부모 및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실정을 고려해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법안에 대한 반대이유는 "협의를 거치게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어느 정도 협의에서 조정될 것을 예상하고 학교측은 필요한 예산보다 더욱 높게 책정한 등록금을 학생측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동결만을 주장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등책협이 시행 초기에 보일 수 있는 과도기적 양상에 불과하다. 조선대는 88년 교수, 직원, 학부모, 학생, 동문을 중심으로 '대학자치협의회'를 마련했고, 등록금 역시 해마다 위원회를 두고 결정해 왔다.

2000년부터는 대학발전협의회(이하 대발협)로 이름을 바꾸고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합의하고 있다.

특히 등록금은 대발협의 합의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어서 대발협의 위원들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 오랜 세월동안 민주적 합의기구로서 정착된 협의기구는 학내 구성원의 신임을 받고 있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대학자치협의회에서 시작해 조금씩 학내 구성원간의 소통기구를 늘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조선대의 경우를 볼 때 등책협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부
special@dongguk.edu

민주적 의결기구 정착이 대학개혁의 핵심

최근 대학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운영의 핵심 주체여야 할 교수가 의사결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며 교수의 대학운영 참여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학생은 교육의 한 주체로서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학위기의 원인이 전근대적인 대학지배구조라며 대학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대학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립대학이 전체대학의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사립대학의 문제는 곧 전체 대학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립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상당수의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은 채 대학 운영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나아가 일부 대학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법인을 살찌우는가 하면 학생의 등록금으로 치부하는 사학경영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덧붙여 대학의 인사, 재정 등의 중요한 결정이 대학경영자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학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몇몇 족벌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대학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인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대학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인사, 재정 등 중요한 대학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대학 운영과정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학내문제로 인한 대학가의 갈등은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은 연구하고 학습하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대학 지배구조의 개혁과 대학의 민주화의 한 대안으로 '대학운영위원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의 교수대표와 학생대표, 교직원대표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로 여기서 대학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각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운영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미 초·중·고등학교에서는 96년부터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 그리고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운영과 관련한 전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학교민주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물며 우리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어야 할 대학에 학교민주화의 상징인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여기에 교육주체인 교수대표와 학생대표 그리고 교직원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위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

대학운영위원회는 지난 1999년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학내문제로 인한 대학가의 갈등과 대학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대학은 모름지기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학문에 관하여, 대학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대학이 모두의 신뢰 가운데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학구성원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이 토론에 기초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대학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당국과 교수,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공간인 대학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박경양
참교육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도전하세요! 학문의 탑쌓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11TH ENGLISH ESSAY CONTEST

- 대 상 : 동국대학교 재학생
- 일 시 : 2002년 11월 14일 오후 6시
- 장 소 : 명진관 A104
- 상 품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상 금 : 최우수상 1명 - 30만원
  우수상 2명 - 15만원
  TIME상 1명 : TIME 1년 구독권
- 원서접수 : 11월 14일 오후 5시까지, 학생회관 지하 1층 동국포스트
- 문 의 : (02) 2260-3493 / dgpost.dongguk.ac.kr
- 주 최 :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 협 찬 : (주)UPA TIMEKOREA (02) 708-3664

The Dongguk Post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제40회 동대 학술상

-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시 상 : 인문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제17회 동대 문학상

-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 응모요령 : 시부문 - 3편 내외
  소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희곡·시나리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시 상 : 시 부 - 장원 30만원, 가작 15만원
  소설부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희곡·시나리오부 - 장원 50만원 가작 25만원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 2002년 11월 11일 ~ 29일까지
▶ 심사위원 : 응모작품에 따라 추후 별도 위촉
▶ 입상발표 : 2003년 1월 1일자 동대신문 지상

동대신문사

소나기

이제 커뮤니티도 돈주고 만든다(?)

△글 올리면 무시하던 프리챌 운영자들.
이젠 커뮤니티까지 돈내고 쓰라하다니…
△어쩔수 없지만 너무한다.
나 커뮤니티 다음으로 다 옮겼다.
△안하면 그만이다.
△무료로 가입자 늘리고 유료화하니… 결국
밤새서 커뮤니티 무료사이트로 이전했다.
기본적 상도덕도 없는 것 같다.
△다들 방빼자.
△이 양심없는 프리챌아.
△너무 성급한 결정으로 보인다.
△회원수가 많아지면 양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다.
△처음엔 다들 무료로 시작하는데 인기 좀 끌면
돈 받을려구 해. 문제야 문제.
△프리챌 안쓰는데. 다들 다음을 쓰자.
△프리챌 안하고 만다.
△IT업계는 멸종 앞둔 공룡이다. 제대로 된
수익모델을 찾을 때이기에 나는 찬성.
△유료화 말도 안된다.
△유료화? 할말없음.
제대로 된 유료화가 몇이나 될까?
△사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의
유료화는 당연한 것이다. 처음부터
유료서비스였어야 하는데 무료라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현재의 반발이 발생하였다.
△프리챌에 압박을 세우시오.
△안쓰고 만다.
△결사반대! 유료화 되면 다음으로 옮길테다.
△광고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냐?
△프리챌이 유료화 성공하면 내가 애용하는
다음도 그 뒤를 따를테니까 유료화 반대.
△짜증나네. 프리챌의 횡포다.
△나 이제 프리챌 안해야지.
△아마도 프리챌은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다음에게 완전 밀리겠군.
△누군 땅파서 장사하냐? 유료화 찬성.
△유료화는 좋은데 한달에 3000원은 좀 많은
듯하다. 일년에 만원 정도는 어떨지?

서울 ☎ : 2260-3491· 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 · 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논단

강 정 구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교수

'핵' 의혹 속에 가려진 진실

북한 '핵무기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갑자기 긴장이 고조되고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조기에 나타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좌우될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 없이 온갖 설만 분분하다.

미국정부는 막연한 주장만 하지 어느 지역인지 또 고농축 우라늄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CNN이, 켈리가 강석주 외무부상을 몰아붙이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래,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 전부다. 이는 핵무기 개발 시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북한이 시인했다는 것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핵 프로그램'이다. 천연 우라늄이 풍부한 북한으로서 전력용 발전을 위한 핵계획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우라늄 시설 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이 핵 프로그램은 핵무기개발 증거나 반핵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북한죽이기에 위협받으면서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이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군사공격을 미연에 차단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기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제까지 의존해 왔던 일종의 생존술이었다.

북한은 최근 신의주 특구와 같은 개혁과 개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북일정상회담이나 철의 실크로드 등을 통해서 동북아5개국에 상호협력체를 출범시킴으로 장·단기적 생존권을 확보하는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 더 나아가 미국과 매듭을 지어야 이 구도가 완결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를 위해 모호한 방식으로 의혹꺼리를 제기함으로써 미국을 협상으로 유도해 마지막 담판을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몸부림을 선의로 받아 주기보다는 비공개리에 한국 및 일본과 깊이 논의하기로 한 이 문제를 느닷없이 언론에 흘려 제네바합의 파기 설까지 나오도록 했다.

그야말로 역이용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동북아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동북아의 독자적 행보를 파탄시켜 계속적으로 미국의 손아귀에 묶어 두려는 고도의 악의적 술책이다.

동북아협력체 구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치르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가 통하지 않으면 전쟁에 의존하겠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실제 월드컵의 붉은 악마에 온 한국이 취해 있는 이번 여름 미국은 한국정부에도 비밀에 붙인 채 대북한 기습 선제공격을 입안하고 있었다. 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핵태세비밀보고서와 부시독트린에서 대북한 핵 선제공격을 명시화하면서 이라크 다음에 북한침공을 노골화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에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 무성보장문서를 북한에 주기로 한 제네바합의 위배다. 실제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 경수로발전소 2003년 완공, 외교관계 수립, 미국무성 보장문서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단지 중유 50만톤만 이행했을 따름이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막무가내식 제네바합의 위배와 전쟁위협이 동북아협력체의 서막을 가져왔고 다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미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부시의 '평화적 무장해제'와 같은 사탕발림에도 불구하고 전쟁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94년 전쟁위기의 재판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인 사이비 한국인이 판치는 우리 주류 언론과 정치계의 전쟁부추기식 대응과 대선 정쟁꺼리로 삼는 것은 민족의 공멸을 가져온다. 핵심은 남북공조를 통해 민족공존을 최우선에 놓는 냉정한 해결책을 우리 모두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오솔길

유 민 지 (사과대1)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참가자

"북측 친구들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얼마 전 금강산에서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이하 청학대회)'가 열려 분단 47년 만에 남북청년들이 처음 만나는 감격의 순간이 이뤄졌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을 현장에서 경험한 유민지(사과대1) 양.

"청학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통보를 받고 설렘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라며 그녀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아 온 북측 사람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고 한다. 친구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유 양을 걱정했지만 이미 금강산을 향해 있던 그녀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어색했지만 조금 지내보니 어느새 그들과 친구가 됐어요"라며 그녀는 예상외로 농담을 잘하고 장난도 치며 따뜻하게 대해 준 북측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바위처럼'이나 '한결같이'와 같은 민중가요를 알고 있어 놀라웠어요.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율동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유 양. 하지만 조총련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살면서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안쓰러웠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채 나누기도 전에 대회는 아쉽게 막을 내려야만 했다. "이튿날, 금강산 산행을 마치고 바로 북측 청년들과 헤어져야 했어요"라며 그녀는 "갑작스레 헤어지는 바람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고 말한다. 또한 "바쁜 일정에 쫓겨 북측 청년들과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도 갖기 힘들었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남북 청년학생들의 마음만은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하나가 될 것 같아요"라며 이제 북측을 '한가족'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유민지 양. 앞으로 청학대회에서 느낀 따뜻함과 감동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이 통일의 꽃을 활짝 피우길 기대해 본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부산 아시안게임 자원봉사를 다녀와서

도전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

10월의 문턱으로 다가설 즈음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다. 나는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왜냐하면 내 고향인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이고 또한 내가 전공으로 하는 스포츠행사였기 때문이다.

개막에 들어가는 순간 뇌리에 스치는 느낌은 '이제 시작이구나. 장난이 아니구나'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큰 역할이 되겠구나' 하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맡게 된 분야는 통역이다. 우리가 흔히 현장이 아닌 방송 매체를 통해 스포츠 중계를 볼 때, 해설자와 아나운서의 첨가된 설명과 화면이 나온다. 그 중계석 한 켠에서 통역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

선수와 관객, 나를 포함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난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많은 것을 느꼈다.

첫째는 참여의 의미이다. 대학시절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적 행사를 위해 작은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중이나 주변인에 머무르지 않고 한 축이었다는 것에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느꼈다.

사회체육을 전공하는 내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봉사활동이기도 했다.

전공과 관련된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여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기, 이 시절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벤트 행사에서 단지 진행자의 일방통행과 같은 수직적 진행, 계획이 아닌 진행자와 참여자가 동시에 만족 할 수 있고 서로가 웃을 수 있는 수평적 기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학생, 특히 우리 과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부분에 있어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큰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외에는 어려움이 없다.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처럼 국내대회가 아닌 범국민적 국제행사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경규성 (인문대 사회체육3)

동악광장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목멱길

축하합니다

△김하나야! 생일이 벌써 왔구나. 축하한다. ㅋㅋㅋ -선배
△TIME 부회장 오해령의 생일을 축하해요.
△통계학과 남현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정남 선배님의 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를 축하합니다. -J.P
△웅기형,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병년
△영스야~ 너의 21번째 생일을 진짜 축하해. 너도 이제 선거할 수 있구나~ ㅋㅋ 나이트 뜨자. -주원니
△공과대 02학번 김문희 29일 생일 축하해요. -캐미어 일동
△인문 99 수범이형 결혼 축하축하. -쫑
△지정훈 2000일 축하한다. -dog family
△승민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선배 종관
△개떡♡우렁각시 100일 축하. 죽을 때까지 지켜보겠음. -인옥

수고하셨습니다

△동연제 기간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TIME
△34대 지리교육과 학생회, 수고 만땅 수고했어요. -떼
△시간표 잘못 짜서 5주간 중간고사 보는 태균형, 주용이 계속 수고해. -하영
△기정, 미연, 지현 언니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어요. -영지
△법과대학 국제법학회 퇴임 집부 여러분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중앙일보 마라톤 참가자들 열심히 연습해서 완주합시다. -마라톤 짱
△정원아 공부 좀 해! -표
△임용이 40여일 남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인 역교과 4학년 모두 열심히… 다 잘될 거예요.
△철이형 올해는 꼭 합격하시길. -손
△진호야! 이번엔 꼭 취직해라. -환
△DUPA 능금제 열심히 해서 우승해 봅시다.
-회장
△'동사춘추' 열심히 준비합시다.
-사학과 짱

그리고…

△파란 가을 하늘 남산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아, 한 많은 내 인생이여!
△오늘 저희과 뽐내기 나가요 응원해주세요.
-S.M
△언니 호주 잘 갔다오세요. -스매쉬 K
△11월 9일은 경제인의 밤.

온방길

축하합니다

△행정2 민하! 늦었지만 생일 진짜 축하해. 항상 밝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며…
-민정, 경란, 석희
△이수아, 생일(10.27)축하해.
△옥동자 형님의 2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왕눈이
△지원~ 커플폰 개통한 거 축하해. -수정
△아미♡태흥이 사귄지 365일 무지무지 축하해.
△진수형, 카드 빚 늘어난 거 축하해요.
-후배가
△뽀의 생일을 축하한다. -빨간 남방
△총학생회의 연대사업 실장님과 창선이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규형, 기정아, 일권형, 재성형, 문근형, 성재야~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열심히 놀아보자. -NO2
△관광학술부, 학술제 학회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관광인 힘내세요!!
△98학번 4인방(정수, 재구, 인섭, 국선)시험 보느라 수고했다.
△경선아! 일하면서 시험 본다고 힘들지? 힘내!! -99수정
△거리문화제 준비하느라 한울회 사람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8민아
△선화야, 복학해서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99현민

열심히 합시다

△아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엘리트 됩시다.
△전동국인테니스대회 준비한다고 수고했다.
△수영이의 취업을 기원합니다. -왕눈이
△영기야! 선거 꼭 이뤄라.
△은진아, 재경아 무대 위에 올라가서 꼭 상타고 내려오기다!!
△성욱이 오빠, 서울 가서 취업시험 합격하고 와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K·S아 시험 잘 쳐라. 난 합격한다. 파이팅!! -H·Y

그리고…

△시련의 상처는 곧 잊혀지리라.
△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Champion
△한수야! 무사히 졸업 할 수 있길 빈다.
-델 피에로
△경환아, 시험 잘쳐라! -J·K
△폰을 자주 잃어버려야겠다.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DUCT 어느 여인네

금주의 식단

서울캠

	월(10/28)	화(10/29)	수(10/30)	목(10/31)	금(11/1)
동국관	참치우거지탕 (1500)	사골곰탕 (1500)	오징어섞어찌개 (1500)	양지탕 (1500)	쇠고기미역국백반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밋소스볶음밥 (1500)	닭도리탕 (1500)	해물덮밥 (1500)	미트볼카레라이스 (1500)
	피자돈가스 (1500)	너비아니백반 (1500)	버섯불고기 (1500)	청포묵비빔밥 (1500)	생선가스 (1500)
상록원	사골우거지탕 (1500)	부대찌개 (1500)	갈비경단백반 (1500)	닭곰탕 (1500)	비엔나돈육볶음백반 (1500)
	오징어가스 (1500)	돈육고추장불고기 (1500)	김치잡채 (1500)	어묵덮밥 (1300)	소고기볶음밥 (1500)
	궁중떡볶이백반 (1500)	닭조림 (1500)	만두육개장 (1500)	참치김치찌개 (1500)	나물비빔밥 (1500)
교직원	소고기국밥 (3000)	버섯솥밥 (3200)	완자전골 (3200)	카레라이스 (3000)	꽃게탕 (3500)
	김치볶음밥 (3000)	장어강정 (3200)	순대볶음 (3200)	콩비지찌개 (3200)	홍어찜 (3500)

경주캠

	월(10/28)	화(10/29)	수(10/30)	목(10/31)	금(11/1)
학생회관	시금치국 (1300)	감자된장국 (1300)	근대국 (1300)	시락국 (1300)	어묵무국 (1300)
	소고기볶음밥 (1700)	참치야채비빔밥 (1500)	장터국밥 (1300)	곰탕 (1800)	닭갈비볶음밥 (1700)
	육개장 (1800)	설렁탕 (1800)	짜장덮밥 (1700)	함박스테이크 (1800)	육개장 (1800)
	불낙덮밥 (2000)	팔보채덮밥 (1800)	치킨가스 (1800)	카레라이스 (1800)	해물덮밥 (1800)

달하나 천강에

중간고사 유감

최 순 열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우리 학교 학칙 상으로는 굳이 '중간평가'라는 게 없다. 학기당 적어도 2회 이상의 적정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피드백의 기회를 충분하게 가지고 학업 성적의 평정에 있어 객관성과 변별성을 유지하라는 정도의 가이드 라인만 있다.

이는 그만큼 교수와 학생이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일제히 학기 중간 무렵인 이맘때에 소위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다. 그 방법도 대체로 지필법에 의하고 있다. 중간고사 치른다고 정신 없는 모습들은 보면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 잘난 정답을 달달 외우는 천재성이여.

학생들은 시험의 결과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정답이 무어냐고 묻는 학생이 있고, 자기가 작성한 답안이 몇 점 짜리인지 알고자 안달하는 학생도 있다. 어떤 학생들은 수첩에다 예상 점수를 기록해 두었다가 학기말에 산출된 자기 학점이 정확한지 아닌지 검증해 보기도 한다.

답답한 노릇이다. 짐짓 학점에 초연한 만용은 악덕인가. 면학의 결과는 반드시 성적에 비례하는가.

그러다 보니 정확성을 자부하는 어떤 교수는 엄밀성과 변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소수점 이하의 수치까지 점수를 환산해내는 묘를 보이기도 한단다. 예를 들어 87.0점은 B+가 되고 86.7 점은 B0가 된다나. 아, 너무도 칼날같은 혹독함이여.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연인즉, 엄밀한 상대평가에다 성적이 장학관계나 졸업 후 취업시 중요한 사정 자료가 되고 보니, 학생들이 성적에 기울이는 관심은 너무 살벌한 지경이다.

주지하다시피 같은 클래스에서 누가 컨닝을 했다는 내부고발(?)이 익명으로 나돌고, 시험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공연한 압력이 담당교수에게 전해지기도 하는 판이다. 대학이 비로소 지성과 양심의 전당이 되었도다.

좀 달라지자. 학생들이 옹색하고 자질구레하고,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푸념하지 말고, 교수부터가 한 번 달라져 볼 생각을 해보자.

우선 과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시험문제부터 창의적이고 문제적 발상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전환해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객관성이나 변별성의 노예가 되지 말자. 만용스럽게 한 번 얘기하자면, 한 학기동안의 수업과정을 통해 전인적으로 수강생의 학업달성과 인간됨을 교수 자신의 전인적 통찰력으로 평정하는 방법을 행사하고 싶다.

참된 경영인의 자질을 키워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야간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편병철이라고 합니다. 비록 남들보다는 늦게 시작한 학업이지만, 배움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11년 전 건설업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을 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이론적인 지식이 없었기에 건설현장에서 1년 간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살아있는 현장지식을 습득하여 1992년 작은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나는 한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건설현장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지만, CEO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의 건설회사를 이상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참된 경영인으로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완벽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하나의 회사를 경영하는 CEO로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사례들을 모태로 삼아 변화를 시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선 나 자신부터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설에 대해서는 프로를 자청하지만 경영자로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전문경영인이 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건설현장을 잠시 떠나 경영학도의 신분으로 참된 경영인이 되기 위한 자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생으로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동안 쌓아온 경영인의 자질을 바탕으로 자전적 에세이집을 출간하게 되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경영인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언제라도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갈 것을 자청할 것입니다. 경영인의 참된 모습을 갖추도록 도움을 준 동국대학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동국대학생으로서의 자부심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편병철
(GV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 · 야간강좌 경영1)

분실사고 유발하는 도서관 자리 잡기

도서관 열람실 문을 열고 입구를 지나치는 순간 '야! 좀 돌려 주라, 나 그거 막노동해서 번 돈으로 샀단 말이야'하고 쓰여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언뜻 보기엔 읽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는 익살스런 문구였지만 소지품을 잃어버린 이의 애타는 심정이 역력했다.

요즘 중간 고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도서관 출입이 잦아짐에 따라 이 같은 분실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단순히 물건을 훔쳐간 사람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

도서관에 가보면 일단 자리부터 맡아보자는 생각으로 책 등과 같이 간단한 소지품만을 올려놓고 정작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이러한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자리로 맡아두고 가서 물건이 없어진 후 뒤늦게 나타나 없어진 소지품을 찾느라 이리 저리 발을 동동 굴려 봤자 이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First Come, First Served'란 말처럼 도서관에 먼저 온 사람이 정당하게 자리를 잡고 마음 편히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같은 치열한 자리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맡기 위해 올려놓은 소지품의 분실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좀더 진보적인 대학문화를 만들어 나갈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노경애 (인문대 영문4)

영어를 잘 하려면 방법을 바꿔라!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지만 이제 영어를 잘 하고 싶으면 과감히 도서관에서 뛰쳐나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대학 졸업자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영어를 공부해 왔는데도, 영어를 잘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잘못된 영어 교육 방식을 지금까지 답습해온 것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출간되고 있는 수많은 영어 공부 방법에 관한 저서들과 관련 자료들의 대표적인 내용은 현 영어교육의 주소가 잘못되었음을 피력하고, 이것을 바로잡는 영어 공부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워왔던 문법 따지기 식 방법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영어를 듣고, 읽고, 말하라는 것이다. 즉, 눈으로 보던 영어에서 입과 귀를 사용하는 영어로 전환하라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과감히 도서관에서 나와 어학 실습실로 향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토익이나 토플 등 시험을 위한 교재들이다. 영어가 시험으로서 그 진가만을 발휘하는 나라이니 만큼, 취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토익 점수를 900점 이상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년 정도 공부해야하며, 적어도 토익을 열 번 정도는 쳐봐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공부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1년 정도 토익을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1년 정도 말하기, 듣기 위주의 방법으로 공부해서 영어도 자유롭게 구사하고, 토익은 덤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알면서도 계속 도서관에 앉아 있으니 말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취직을 하자니 당장 토익 점수가 급한데, 언제까지 하염없이 듣고, 말하고 앉아 있냐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문제를 푼다. 그렇게 열심히 풀다보면 토익은 고득점을 받지만, 영어를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넉넉잡아 10년이면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국제화가 되어 일상 업무나 비즈니스 미팅을 영어로 할 정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김현석 (상경대 정보산업4)

젊음의 열정에 미친 나의 대학생활

공연이 얼마 안 남았다.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 내가 탈에서 공연이라는 것을 처음 했을 때를 말이다.

공연 전 길놀이. 난 미쳤다. 그냥 그대로 미쳤다. 땅에 드러눕고, 또 웃고, 또 뒹굴고, 또 소리지르고. 난 그야말로 연희를 하고 있는 광대였다. 아마 앞으로도 그 때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열정을 삶에서 또 누릴 수 있으랴.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기억난다. 같이 판에 등장한 '탈박이'들이며, 우리들을 바라보는 관중의 눈빛이며, 또 그 때의 분위기며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하다니….

그래서 난 그대로 미쳤다. 장구에, 또 탈춤에, 그리고 마당극이라는 공연에 미쳤다. 물론 그렇게 하나에 '미쳐서' 사는 바람에 또한 여러 가지를 잃었다. 하지만 언제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 다시 돌이켜 봐도 후회는 없다.

난 그렇게 대학생활의 반을 지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때로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밤도 새워보고, 또 풍물을 치며 눈을 감고 머리를 비워도 보고, 신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 보고,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 한 시간에 다같이 모여 무엇을 만들기 위해 땀흘리는 것 자체가 참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공연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미쳐도 보고… 젊음의 열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 지금도 그게 좋아 공연을 준비하러 탈방에 간다.

김민희 (사범대 가교2)

인터넷 속 익명성 … 바르게 사용해야

우리는 현실세계 외에도 또 다른 세계인 사이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이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 버렸고, 매일 매일 사이버 세상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실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아이디 또는 대화명, 그리고 아바타 등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이용하고 있다.

분명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이버 세상만이 가질 수 있는 커다란 매력이다.

하지만 익명성은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이버 세상에서는 비방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고, 때로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익명 게시판이 갖는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허위 사실 유포와 어느 누구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면 그에 따른 논리적인 비판보다는 단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과 비난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난에 있는 익명게시판에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올라온다.

'나의 주장'난의 글을 한 번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익명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욕설, 비난, 비방 글을 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학을 다니는 지성인으로서 양날의 검을 가진 사이버 상에 익명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주상훈 (이과대 반도체4)

아름다운 인연을 꿈꾸며

나는 '인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부대끼며 지낸 것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어떠한 '인연'에 의한 것인지도 모른다.

산소학번 새내기로서 인생의 황금기라는 대학생활을 시작한지도 어느새 8개월이 되었다. 나는 그 기간동안 동아리 활동, 과 활동, 소모임 활동까지 병행 해 가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났다. 모두의 인연이 그런 것이기에….

함께 어울리며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하며 그밖에 여러 방법으로 난 그들과 친목을 키워 나갔다.

그러면서 보낸 나의 대학 생활 8개월은 희망과 좌절, 기쁨과 슬픔의 교차가 만발했던 나날들이었다. 동시에 그 속에서 여러 인연을 만나왔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앞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인연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인연들을 아름답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기 위한 원동력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믿고 싶다. 그것은 변화하는 또 다른 나를 찾는 일이기에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인연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때문일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

좀 더 나은 내일의 인연을 생각하면 말이다.

임영완 (문과대 인문학부1)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미군 범죄를 다시 본 기회 근본적 원인 분석 아쉬워

요즈음 들어 반미감정이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일어난 효순이, 미선이의 장갑차 사건과 여러 가지 주한미군 범죄 등의 좋지 않은 면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지난 신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면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단체들의 반미투쟁여론과 미국의 이라크 전 반대라는 입장을 잘 반영한 것 같다.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특별한 입장표명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학생들의 의도를 잘 취재한 것 같다. 다만 시위과정에서 일부 격렬한 몸싸움 등은 좀 안타까웠다.

투쟁을 하려는 학생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전경의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에서와 같이 그들 모두가 같은 우리의 이웃이거나 친구일 수 있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서로 싸워서 상처 입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은 좋았지만, 반미감정의 깊은 골의 원인이라던가, 왜 미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웠다. 이러한 원인과 더불어 시위말고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방면의 노력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조진원 (경영대1)

현상에만 머무르기보다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수강 취소에 관한 기사를 읽었을 때, 주변에 수강 취소자가 몇몇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 했다.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수강정정을 하는 것은 아마도 수강강좌가 인기 강좌와 비인기 강좌로 나눠지는 데 따른 결과인 것 같다.

지난호 동대신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전공과 교양별 수강 취소 비율만을 싣고, 수강 취소 경험과 그 이유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구체적인 견해는 보이지 않았다. 사전 설문을 통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실었더라면 더 좋은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결과적인 현상에만 머무르기보다 학교측의 대책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자 멘트가 있었더라면 이 기사가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예전에 본교에서도 수강 신청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3년도 1학기부터 새로운 수강 신청 제도를 실시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계획뿐이거나,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에만 연연하지 않고 어려운 강좌도 열심히 공부해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설성욱 (상경대 경영4)

학내 공연 문화 둘러보기

공연장 용도 · 시설상 문제점 해결 시급

학생들은 학내에서 진행되는 동아리 · 소모임 등의 공연을 통해 가장 쉽게 대학문화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본교의 경우 전용 공연장이 없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또한 부족해 학내 공연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공연장들마저도 용도 · 시설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학내공연장들을 돌아보며 각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학내공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① 학내 공연장 진단
② 학내 공연 활성화 대안 제시

본교 학생들 중 다수가 대학 문화를 즐기기 위해 타대학의 대학가인 대학로나 신촌을 찾는다. 그런가 하면 대동제가 열리는 때조차 타대학 축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학생들도 있다. 이는 곧 본교의 공연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학생들의 관심 역시 저조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밑바탕에는 본교에 세종대의 대양홀, 경희대의 크라운관과 같은 전용 공연장이 없다는 문제가 깔려 있다. 때문에 대표적 문화행사인 대동제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연들은 학내 곳곳을 전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중강당 · 예술극장 · 학림관 소극장 등 일부 학내 공연장의 위치가 학생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 내부에 위치해 학생들의 참여 역시 활발하지 않다. 그러므로 많은 공연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명진관과 동국관 부근에서 야외공연으로 진행되지만, 이는 근처 건물의 수업과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게다가 공연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들마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먼저 가장 많은 야외 공연이 진행되는 만해광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현재 만해광장은 타대학의 노천극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본교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무대의 조명 · 음향 시설이 상시적이지 않아 공연을 할 때마다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또한 전력량이 모자라 행사의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발전차가 동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만해광장이 지어질 때의 용도가 공연장이 아닌 광장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만해광장은 건축법상 광장이기 때문에 공연장이 갖춰야 할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물을 짓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본교는 건축법상 규정된 건평율 30%를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지면에 닿는 시설물 설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동아리 · 소모임 실내공연의 대부분이 열리는 학림관 소극장의 경우는 시설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극장 안으로 비가 샌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여러 번의 복구 공사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장난 스피커 한 대가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어 객석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음질의 소리를 감상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영화상영과 문서 자료제공 등을 노트북과 연결해 간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다른 세미나실에서 떼어와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비교적 규모가 크고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강당이나 예술극장 역시 규모에 비해 스피커 시설이 부족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시정한다 해도, 당장 초래되는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지만 공연장 문제의 근간인 공간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학내 공연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거리공연 활성화 등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두리터에 설치된 가설무대(좌)와 학림관 소극장.

클릭! OTR (www.vrtheatre.co.kr)

연극의 메카 대학로. 하지만 소극장 대신 각종 패스트푸드점과 노래방, 술집이 장악한 최근의 모습은 이러한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기 또 다른 대학로가 연극을 사랑하는 이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공연예술 전문웹진 'OTR'.

'Our Theatre Review'의 약자인 OTR은 97년도에 창단된 극단 몸과 공연기획사 언어누연을 전신으로, 2001년 새롭게 설립된 연극, 영화 제작 및 공연기획 전문 프로덕션이다.

그럼에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웹진을 운영 중이며,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제작방식을 추구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각 분야의 기본정보를 비롯해 전문적인 내용까지 갖추고 있는 OTR은 전통연희부터 현재 공연 중인 작품까지 연극의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겉과 속이 꽉 찬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연극에 한정된 컨텐츠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문화비평' '영화비평' '인터넷문화비평' 등과 같이 폭넓은 문화를 두루 다루고 있다. 또 아동연극이나 여러 퍼포먼스 등 잘 알려지지 않은 행사들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북한연극자료'는 다양한 자료가 링크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회원들이 장르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올릴 수 있는 '~20자평'은 이 사이트가 기본모토로 삼고 있는 열린 운영을 단적인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인식하곤 한다. 그러나 OTR을 보면, 인터넷이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부족함까지 채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문화단신

대화영화제 '폴리틱 온 더 필름'

정치와 미디어의 관계를 살펴보는 대화영화제 '폴리틱 온 더 필름'이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씨네큐브와 아트큐브 광화문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신문의 역기능을 꼬집는 '잊혀진 지도자' 등 언론과 미디어의 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별해 상영한다. 더불어 미디어에 나타나는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방송에서 방영된 대선 관련 프로그램을 전시하는 '영상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문의 993-5573~4.

'인디비디오 페스티벌' 작품 공모

기존 영상기술의 틀을 깨는 '제2회 인디비디오 페스티벌'이 참가 작품을 모집한다.

오는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아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첫행사였던 지난해 다양한 문화영역을 넘나드는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공모분야는 디지털 스페이스 · 포엠 · 랩 세부문으로 나뉘며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받는다.

문의 337-2870.

이제 미디어는 우리의 손끝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관심사 벗어나 여론 형성의 마당으로

나의 생각이 여론이 되고, 당신의 취향이 유행이 된다. 다양한 빛깔의 감수성과 서로 다른 논조의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한 곳에 모여들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문화, 즉 이 열린 공간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온라인 상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 인터넷 홈페이지가 그 영향력으로 인해 가히 '미디어'라 부를 만한 형태로 도약하고 있다. 개인이 자기만족이나 지인들 사이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던 홈페이지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이 접속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개인미디어로 발돋움한 것이다.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컨텐츠를 향유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운영자 혹은 방문하는 사람들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양상은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의 대다수가 신변잡기적인 것에 비해 개인미디어는 다양한 사회 · 문화적 이슈들에 대한 견해가 오고 가며, 때로는 치열한 논쟁의 장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독특하고 창의적인 컨텐츠로 생산적인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미디어만의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개인미디어는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미디어의 주체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채로운 성격을 띤다. 음반리뷰, 창작소설, 트래쉬토크 등을 게재하고 있는 문화웹진 '이매진(imazine.hihome.com)'이나 '사람으로 살펴본 20세기 문화예술사'라는 기치 아래 문학, 미술, 영화 등 문화 제 분야를 총망라하는 '바람구두연방의 문화망명지(windshoes.hihome.com)' 역시 이런 개인미디어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미디어의 범위를 넓혀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매체로 본다면 윈엠프 음악방송 또한 예외는 아니다. 채팅방에서 IP 주소를 띄워 단발적으로 운영되던 종전에 비해 현재는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방송국이 점점 그 수를 늘려 가는 추세이다. 이런 방송국들은 구체적인 방송일정과 시간대별 담당 사이버자키(cyber jokey 이하 CJ)도 있어, 정기적으로 방송을 듣는 고정청취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CJ들은 음악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멘트를 하기도 하고, 방송 중에 메신저 등으로 신청곡을 받으며 전화연결을 하기도 한다. 이는 라디오 대신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과 누구나 CJ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기존의 라디오 방송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개인미디어는 매체가 인터넷이라는 점에서 이미 여러번 거론된 바 있는 치명적인 한계점을 갖는다. 익명성으로 인해 자칫 공격적인 언어의 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사이트 자체의 성숙도와 문화적 토양에 따라 내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여론을 선도하고 대중의 취향을 결정해 온 것은 신문, TV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였다. 하지만 매스미디어가 대중의 생각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전체적인 유행을 창조해 취향을 획일화시키는 시대가 갈 날도 멀지 않았다. 일방향적이고 권력적인 매스미디어보다는 쌍방향적이며 자율적인 개인의 활동이 미디어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생산자로 거듭난 개인. 이제 미디어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2003학년도 전과(전공변경) 공고

1. 지원자격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F성적을 포함) **2.5 이상**인 진급예정자
2. 전공변경 대상전공(학과) : 원칙상 계열제한 없이 전 전공(학과)
3. 제한사항
   가.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공(학과) 변경
   나. 캠퍼스간 전공(학과) 변경
   다. 야간에서 주간 및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공(학과) 변경
   라.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마. 입학시 전공(학과)변경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자
   바. 예체능계 지원시 실기시험 부과
4. 전공(학과)변경 허용인원 :
   전입 전공(학과) 2001학년도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 20%)**
5. 시행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처 : 전입희망 전공 소속대학 교학과(야간은 야간강좌 교학처)
      2) 접수기간
         ① 재학중인 3학년 진급예정자 : **2002. 11. 18(월) ~ 22(금)**
         ② 2003학년도 1학기 3학년 복학예정자 : **2002. 12. 9(월) ~ 11(수)**
      3) 구비서류 : ① 전공(학과)변경원 ②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 예체능계 지원자는 별도의 전형료(₩30,000)를 납부하여야 함.
   나. 면접 및 실기고사 : 전공(학과)별 일정에 따라 **2002. 12. 16(월) ~ 20(토)**
   다. 전공(학과)별 합격자 결정 : **2003. 1. 24(금)**
   라. 전공(학과)변경 합격자 공고 : **2003. 1. 28(화)**
6.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일반계열 : 2학년 성적평점(100%)+면접
   나. 예능계열 : 2학년 성적평점(70%)+실기고사(30%)+면접
   다. 사범계열 : 2학년 성적평점(90%)+교직 인 · 적성검사(5%)+면접5%
   라. 체육교육과 : 2학년 성적평점(60%)+교직인 · 적성검사(5%)+면접(5%)+실기고사(30%)
7.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육군 일반보병 지원제도 안내

군대! 내가 가고싶은 시기에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 일찍 군복무를 마치고 싶습니까?
- 특별한 기술자격증이나 면허가 없어도 육군병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 육군에서는 일찍 군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육군 일반보병(공용화기)지원제도를 신설, 2002년10월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 18세 이상 29세까지(입영년도기준)의 고졸학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입영일자에 맞추어 지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육군특기병 지원은 특정 기술자격이나 면허 또는 대학에서 전공학과를 2년이상 수료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따라 병무청에서는 특정 자격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급적 일찍 군복무를 마치고 싶어 하거나, 특정시기에 맞추어 입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격이나 면허, 전공학과 경력이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육군 일반보병(공용화기)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 **지원자격** : 현역입영대상자(고졸이상, 신체등위1~2급)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서 제출
2. **선발방법** : 지원자 중 신체등위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3. **접 수** : 2002.10.1부터 지방병무청(병무사무소) 민원실에서 접수 (2003.1.1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함께 접수)
4. **구비서류** : 지원서1부, 칼라사진(3×4)2장, 친권자 도장(20세 미만)
5. **입 영** : 2003년 1월부터 입영
6. **복 무** : 육군훈련소(논산)에 입영, 군사훈련 후 개인별 군사특기(공용화기)분류, 근무부대로 배치 복무
7. **문의/안내**
   ☎전국1588-9090, 지방병무청 민원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서울지방병무청 모병실 : 02)820-4356

병 무 청

육군 동반입대 복무병 지원 안내

1. 육군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 ▶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가까운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까지 같이 내무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장정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 ▶ 입대 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향상에 기여하도록
   - ▶ 육군에서 2003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동반입대 복무여건
   ▶ 동반입대 복무제도는 2명을 동일한 내무생활권 단위까지 배치하여야 하므로 제도 운영상 복무여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복 무 조 건
◆ 동반입대 인원	2명
◆ 입영하는 부대	102보충대(춘천), 306보충대(의정부)
◆ 복무부대 · 지역	1,3군 관할 부대(경기,강원지역)
◆ 복무분야(특기)	일반보병, 야전포병

3. 동반입대 복무지원자
   - ▶ 18세~29세(입영년도 기준), 현역입영대상자(고졸이상, 신체등위 1~3급)
   - ▶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동반입대 복무지원서 제출
4. 지원서 접수 / 선발절차
   - ▶ 지방병무청(병무소)민원실에서 연중 접수(동반입대할 2명이 함께 지원서 제출)
     ※ 2003.1.1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함께 접수 -병무청홈페이지 육군병 모집
   - ▶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접수순으로 전원선발하되 수형 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5. 모집시기 / 입영시기 : 2003.1.1부터 지원서 접수, 2003.4.1부터 입영
6. 문의 및 안내
   - ▶ ☎ 전국1588-9090, 지방병무청 민원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서울지방병무청 모병실 : 02)820-4356

병 무 청

공연예술의 메카, 그 부활을 꿈꾸는 명동

얼마 전 제30회 명동축제가 막을 내렸다. 1972년 명동(明洞)에 있던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이 축제는 명동이 퇴색되어 가는 것을 막고 과거 화려했던 유행의 거리가 지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의도에서 명동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명동이 문화의 총 본산이며 유행의 거리가 된 것은 공연예술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온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럼 명동은 어떠하여 공연예술이 이곳에서 싹텄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문화의 뿌리

1800년대 말부터 1900년 초두에는 쇄국주의 주창이 물러가고 개화사상이 팽배해지면서 명동을 비롯한 그 주위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서양식 건축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대개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등의 공사설계·관리로 이 시기에 명동성당 및 여러 나라의 영사관과 한국은행이 마련되었다.

이즈음 일본인들은 한국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한일합병조약을 조인하였다.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고쳐 1909년 공개하는가 하면 경원선 준공, 경원선·호남선 철도를 착공하여 북진정책의 교두보를 모색하는데 혈안이었다. 합병된 후 명동, 회현동, 남대문역(경성역으로 후에 바뀜)부근까지의 서울 남촌은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해 생활구역으로 만들어 갔다. 이와 함께 어성좌(御成座-후에 남성사로 개칭) 수좌(壽座), 경성좌(京城座) 등의 극장도 세워졌다. 경성좌는 세종호텔 뒤 진고개에 세워진 일본인 극장이었다. 이 개화기에 초동에 사는 임성구는 이러한 극장들을 전전, 급기야는 경성좌 신발장 책임자가 된다. 그는 이곳에서 일본연극을 어깨 너머로 공부하여 1911년 신파극단 혁신단을 창단, 우리나라 신파극의 선구자가 된다.

변화를 거듭하다

1919년 3.1 운동이 펼쳐진 이후 명동에는 다방 멕시코가 처음 문을 열게 된다. 그리고 1922년 성당 앞쪽에는 2층 목조 600석의 중앙관(1937년 벽돌로 개축, 중앙극장으로 개칭)이 설립되어 유수의 극단이 창단되고 이곳을 공연의 중심가로 여겨 신청년, 희망가극단, 청춘극장, 민예혁명극장, 낙랑극회, 청포도극회, 황금파, 서민극장, 무대예술연구회, 중앙무대를 비롯 고대·연대·성대 같은 대학극단까지 공연을 하게 되니 중앙극장은 1956년 영화관으로 허가나기 전까지 공연예술의 본거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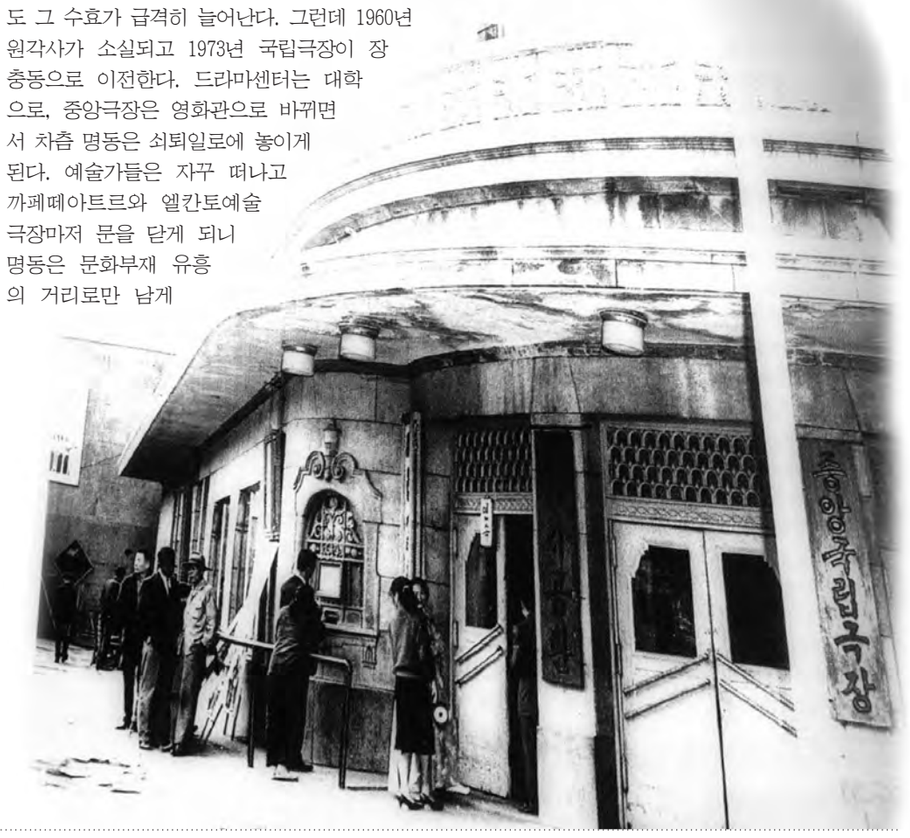
1930년엔 미스코시(三越) 경성지점(1945년 동화백화점으로 개칭되었다가 1963년 신세계백화점으로 개칭)이 생긴다. 이 즈음 충무로는 완전히 일본식 건물일색이 되어 있었다. 해방이 되면서 명동은 급격히 변하게 된다. 일본인이 살던 집은 모두 한국인이 자리잡게 되고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던 몇몇 상점이나 이발관 등만 그대로 그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1910년대에 이발관은 신세들에게 하이칼라나 상고머리를 깎아주던 곳이어서 유행을 부추기는 데 한 몫을 하였다.

해방되고 2,3년 서울시공관이 문을 열면서 이곳은 각종 공연예술 공간으로 활용되어 중앙극장과 함께 쌍벽을 이루었다. 을지로 입구에 있던 내무부건물도 이즈음 세워졌다.

6.25 한국전쟁을 맞은 서울은 텅 비어 있었다. 그나마 명동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 유네스코 회관은 이때 들어서고 사보이호텔, 수도여사대(세종대 전신), 그리고 전후에는 다방과 술집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57년 시공관이 국립극장이 되자 주변엔 음식점, 제화점, 옷가게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1958년에는 을지로 입구에 원각사 소극장까지 개관되어 아마추어나 기성할 것 없이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명동을 근거지로 삼게 된다. 명동의 다방이나 음식점을 가는 곳마다 예술인들이 눈에 띄었다. 세시봉이란 고전음악감상실도 이즈음 문열고 이해랑은 동방싸롱을 200원에 문열어 이 곳은 연극, 영화, 문학, 음악인들의 집합소가 된다. 청자, 고전, 설파 등도 예술인이 붐비기 시작한 다방이고 특히 설파는 연극뿐 아니라 시낭독회, 음악회 등이 간간이 올려질 만큼 예술인들이 많아졌던 곳이다.

충무로 입구에는 태극당 제과점도 생기고 금남의 다방도 문열고 이병복이 문을 연 까페 떼아트르도 1960년대 이후 싸롱극의 확산을 부채질한 곳이다. 1962년엔 예장동에 드라마센터가 문을 연다. 이렇게 되므로 명동은 공연예술의 80%이상이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 그런데다 성당 뒷켠 삼일로 둔덕엔 을지로2가에 있던 에저또극장이 이전해 창고극장을 개관, 1970년대에는 엘칸토예술극장까지 문을 열어 1970년을 전후한 명동은 유행의 산실, 예술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극단도 기존신협이나 민극 외에 제작극회, 청포도극회, 팔월극장, 원방각, 실험극장, 광장, 민중극장, 가교, 여인극장, 자유, 산하 등이 연이어 창단돼 전후 몇 개 안 되던 극단이 20여 개로 늘어나고 무용, 음악 등 타 공연예술도 그 수효가 급격히 늘어난다. 그런데 1960년 원각사가 소실되고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한다. 드라마센터는 대학으로, 중앙극장은 영화관으로 바뀌면서 차츰 명동은 쇠퇴일로에 놓이게 된다. 예술가들은 자꾸 떠나고 까페떼아트르와 엘칸토예술극장마저 문을 닫게 되니 명동은 문화부재 유흥의 거리로만 남게 된다.



명동의 앞날에 대한 믿음

명동은 이제 옛 국립극장을 공연장화하려는 명동상인들과 예술인들의 힘이 모아져 증권회사로부터 되찾게 되었다. 명동축제 내내 상인들은 국립극장의 새로운 개관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의 발길도 잦아졌다. 밤낮없이 밝은 날이 다시 회복되리라 믿어 앞으로의 명동의 장래는 밝다고 여겨진다.

김 홍 우
예술대 연극학과 교수

명동의 숨은 명소들

다양한 문화공존의 발판으로

대한음악사·우정박물관 … 전통과 현대 아우르려는 노력 꾀해야

△위에서부터 명동성당, 우정박물관, 명동축제(좌), 중국인 거리(우)의 모습.

마을 귀퉁이에서 여행서적 전문서점을 운영하는 한 남자와 헐리웃 스타와의 사랑을 그린 영화 '노팅힐'. 영화의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노팅힐은 실제 영국 런던의 한 지명이다. 또한 매년 수백만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의 장으로, 이젠 엄연히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의 명동은 어떠한가. 노팅힐이 전통을 앞세워 거리장터와 카니발을 활성화시키고 나름의 문화를 만드는 것에 비해, 명동은 다분히 상업적이고 현대적인 것만을 좇으며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흔히들 명동을 패션의 거리로 기억한다. 혹은 젊은이들이 '먹고 놀 만한' 곳이 많다는 정도이다. 많은 이들이 오고가는 큰 사거리에 의류상점과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에 가려진 골목골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전통과 향수를 간직한 채 명동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던 옛 명동의 모습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동성당'.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회모순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은 이 곳을 찾는다.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난 7,80년대에는 독재정권에 항거하던 민주화투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는 명동성당이 단순히 몇몇 천주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의 아픔을 담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또한 유투존 뒤편에 위치한 '대한음악사'도 명소로 꼽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음반 판매점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클래식, 팝, 재즈 등의 악보와 악사를 취급하는 음악 전문서점이다. 이곳은 과거 명동이 문화·예술인들의 산실이었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물의 입장권 예매가 가능함으로써 그 때의 명맥을 잇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립극장의 복원과 관련해 명동에 다시금 공연예술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발판인 셈이다.

그리고 중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펼쳐진 '중국인 거리'도 명동의 숨은 진주이다. 대만 연예인들의 포스터부터 약재, 책, 생활용품까지 중국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비록 예전보다 상점이나 상품의 종류와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붉은 간판이나 이색적인 거리풍경은 '작은 중국'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거리 앞 중앙우체국 신관 4,5층에도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 1884년 우정총국의 설치로 시작된 체신업무의 유서 깊은 사료와 각종 사진자료, 실물 등을 전시하는 '우정박물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5백여 규모의 전시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와 희귀 우표는 물론, 우표·우체통·집배원 복장의 변천사와 근대 우편통신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명동축제'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진행된 프로그램 자체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라는 데 의미를 두면 어떨까. 앞으로 명동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명소들을 잘 보존하고 국립극장 복원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팅힐과 같은 명성을 얻기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매체비평

TV 편 - 야인시대

"화려한 신드롬에 가려진 역사왜곡과 폭력미화"

최근 시청률 50%를 육박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야인시대'.

SBS의 대하드라마 '야인시대'가 요즘 상종가를 치는 모양이다. 시청률 50%를 넘나드는 놀라운 수치도 그러하거니와 김두한이라는 인물이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니 전파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방송이 되는 날은 직장인들의 귀가가 앞당겨지고, 택시 기사들은 없는 손님을 기다리기보다 근처 식당에서 늦은 식사 겸 TV를 시청한다니 소위 '긴또깡 신드롬'에 깊이 빠져있는 듯 싶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작금의 정치상황에 실망한 사람들이 사나이다운 통렬함과 나름대로의 애국적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젊은이들을 통해 집단적 대리만족을 느끼는 배설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남성성의 판타지니 기득권 층에 대한 저항이니 하는 그들의 말은 그럴 듯 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화려한 신드롬의 뒷면에 비춰지는 부정적인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도 사실인 양 보인다.

그 으뜸이 역사 왜곡이고 버금이 폭력 미화이다. 실제 인물사를 드라마화할 때 따르는 부작용은 이미 시작 전에 예견된 것인지 모른다. 수백 년 전 인물도 그러하거니와 하물며 그 직계가족이 살아있는 근현대사의 인물을 그려낸다는 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라도 다분히 시청률을 높일 수 있다는 친 상업적인 방송사의 기획이 아닐 수 없다.

김성수를 애국자로 묘사하는 거야 작가의 견해라 치더라도 드라마를 통해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얼마 전 친일파로 규정한 엄중한 사실과 배치되는 일이며, 김두한의 친자가 가족사를 흥미위주로 왜곡했다 하여 방송가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실제적 진실보다 드라마적 재미에 가치 우위를 두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류의 지적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보도된다. 작가 입장에서 보면 빈약한 자료와 주변인물의 타계로 현대사 조명이 그리 녹녹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긴 하나 그런 만큼 그 사람에겐 큰 대가가 지불될 것이고 당연히 시청자들은 왜곡 없는 역사적 접근을 원한다는 걸 상기해야 할 것이다.

폭력은 이 드라마의 독이자 덕이다. 김두한이라는 인물을 그려내고자 했을 때 이미 폭력적 화면은 피할 수 없는 강이 된다. 시청자들은 그 박진감에 즐거워하고 남성적 액션에 열광하지만 안방을 주먹과 핏물로 점령해버린 사이 폭력은 점차 정의로운 항거로 미화되어지고 그 연령층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뭉치, 왕발, 미와경부니 하는 악역별명을 붙여 왕따를 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교도소 내 수용자들이 폭력장면을 흉내내는 바람에 당국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드라마를 통해 잠재적으로 쌓여지는 폭력에 대한 환상이다. 그것은 일순간 폭력으로 나타날 것이며 가학으로 표현될 것이다. 폭력이 순화되어지지 않는 한 그런 사회적 폭력현상에 드라마가 일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지 모른다.

허와 실은 모든 면에서 존재하지만 드라마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실체적 진실과 아름다움을 창출한다는 의식으로 더욱 중무장해야 할 때임을 야인시대를 통해 절실히 느낀다.

김 태 수
극작가

메아리

퇴장명령

▲"삐~익!"

허공을 찢는 듯한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경기가 중단된다. 주심은 이미 빨간색 카드를 손에 쥐고 팔을 높이 들었다. 일순간 경기장이 술렁이고 선수들이 항의해 보지만 결국 해당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쓸쓸히 걸어나간다. 심한 반칙을 했거나 경고가 누적되면 벌칙으로 제시하는 레드카드. 이것을 받은 선수는 두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야만 한다. 이는 월드컵을 치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경기 규칙이다.

▲휘슬소리도 없고 주심의 레드카드도 없었다. 그런데 경기장을 쓸쓸히 빠져나가는 선수가 있다. 그는 바로 지난 월드컵 때 12번째 선수로 맹활약을 펼친 붉은 악마의 신인철 회장이다.

최근 붉은 악마 홈페이지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힌 신회장은 지속적인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아왔다고 털어놓았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정계입문 요구에 신회장은 '붉은 악마의 순수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고 토로했다. 임기를 4개월 남겨둔 12번째 선수는 그렇게 경기장을 등지고 말았다.

▲권력이라는 꿈★을 향한 정치인들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도 모 TV 드라마 주인공을 영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어김없이 악마의 유혹을 뻗친 정치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회장 압력'을 두고 서로의 책임이라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6월 대 국민화합을 이뤄낸 붉은 악마를 '표밭'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통합' '한나라'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삐~익!"

다시 휘슬이 울렸다. 그리고 주심이 아닌 4천만 붉은 악마가 붉은 색 카드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제 정치인들이 경고를 받을 차례다.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의 자긍심마저 짓밟아버린 이들을 우리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을런지. 도무지 페어플레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붉은 악마,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외치고 싶다. "삐~익! 퇴장!"

김혜진 기획부장
atom@dongguk.edu

법과대 형사법학회 탐방

우리가 바로 '솔로몬', 땅땅땅!

매년 가을 모의재판 열어 … 새로운 시각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

만약 당신이 솔로몬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공정한 판단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등장하는 솔로몬의 판결처럼 후에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예비재판을 여는 이들이 있다. 동국관 L동 1층에 위치한 형사법학회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평소 형법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형사법학회는 본교 법학회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형사법학회가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는 '형사모의재판'으로 올해로 27회를 맞이했다. 이 행사는 16회까지는 법과대 학생회가 개최해 오다가 17회인 92년부터 형사법학회가 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회장 김태우(법2) 군은 "학생회가 진행할 때보다 학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내용이 보다 전문적으로 됐다"고 말했다.

형사모의재판은 뇌사, 학원폭력 등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선별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 특히 회원들도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재판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재판이 벌어진다.

본사 사진자료
모의법정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

형사법학회 회원들은 학기 중에는 수시로 모여 형법 관련 공부를 하고 여름방학이 되면 가을에 있을 형사모의재판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원고작성부터 연기연습까지 모든 과정을 회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형사모의재판에 갖는 회원들의 애착이 더 크다.

그러나 때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준비해야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모의법정에 서는 이유에 대해 한 회원은 "형법에 관한 열정과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올해는 '고부갈등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주제의 재판을 무대에 올려 많은 학생들의 박수를 받았다.

형법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오늘도 두꺼운 법전을 손에서 놓지 않는 형사법학회 회원들. '법적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는 그들의 기조처럼 앞으로 열릴 형사모의재판의 판결 또한 '솔로몬의 판결'에 한발짝 다가서길 기대해 본다.

〈석〉
kauri21@dongguk.edu

취업정보

또 하나의 나 - 서류작성

'서류작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눈에 띄는',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이 오는' 서류가 되도록 작성하라고 한다. 서류작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돋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하에서는 또 하나의 나를 표현하는 서류작성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정성이 묻어나도록 하자. 인터넷 접수가 증가하여 클릭 몇 번하고 문서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되어 편리해 졌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증가해 선택되기는 오히려 어려워졌다.

'일단 한번 접수나 해보자', '그 많은 서류를 정말로 검토하지는 않겠지'라는 식으로 합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격요건에 충족한다고 무성의하게 접수하여 불필요한 허수(?)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인터넷 접수는 단순한 클릭 몇 번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과 사회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보다 정성을 다하자.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필을 고민하기도 한다.

채용담당자가 좋은 필체의 서류를 접하게 되면 호감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아무리 악필이어도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단어를 가려 쓴다면, 그 정성을 알아주는 것도 인지상정일 것이다. 나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둘째, 자신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라. 남보다 돋보이는 부분을 기술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과감히 삭제하라.

이것은 면접과 관련된 문제로서 채용담당자들이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에 부족하여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면접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잘난 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누구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

셋째, 지원동기를 확립하라. 좁은 취업문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회사에 지원하는 자에게는 지원동기가 명확할 수 없고, 그러한 사람은 당해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원하는 각 회사마다 그 기업에 맞는 지원동기를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언제든지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입사동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연관하여 확고한 지원동기를 확립하자.

끝으로, 서류는 반드시 복사해 두자. 사소한 일 같지만, 여러 곳에 지원하게 되어 어느 회사에 어떤 내용으로 제출했는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면접시에는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질문을 하게 되므로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두고 기억해 두지 않을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글 제공 = 취업지원팀

35mm 세상

미군에 의해 처참히 죽어간 윤금이 씨가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그리고 박승주 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현실은
여전히 슬픈 모습입니다.

- 지난 25일 故 윤금이 씨 10주기 추모집회에서

엄태규 사진부장
snail11@dongguk.edu

새 소 식

위기시대의 헌법학

독일사의 나약한 과도기로 인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새롭게 평가하는 책이다. 당대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로 인정받았던 바이마르 헌법 제정과정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스에게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헌법개정론에 대한 논란이 많은 우리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송석윤 저/ 정우사/ 정가 2만원.

빼앗긴 얼굴

이 책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23살의 소녀 라티파가 조국에서 겪은 수모와 어려움에 대해 생생하게 기록했다.

탈레반의 광신적인 신앙이 들어서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받아야 했다. 얼굴을 가리고 새장에 갇힌 듯 억압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를 있는 그대로 그려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의 한을 느낄 수 있다.

라피타 저/ 이레/ 정가 8천원.

바로 이번 생애

1951년부터 수천명의 명상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미국, 유럽 등에서도 수행지도를 하고 있는 우빤디따 스님이 좌선과 경행에 대한 기본 지침부터 해탈에 이르기까지 수행의 단계를 소상하게 적은 책이다.

우빤디타 스님이 제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타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변화시키는 등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빤디따 스님 저/ 불광출판부/ 9천원.

한국의 놀이와 축제

본교 김흥우(연극학) 교수가 각 지방을 발로 밟으며 경험한 놀이와 축제문화를 생동감 있게 설명한 책이다.

양력 1월 1일의 전국 해맞이 축제부터 음력 12월 20일의 태백산 탈놀이까지 전국의 축제를 월별로 정리해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저자가 직접 찍은 축제 사진들이 곁들어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김흥우 저/ 집문당/ 1만 5천원.

경계인의 사색

'준법 서약서'에 묶여 35년간 고국으로 오지 못하는 저자가 '경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통일에 관한 실천철학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방적 흡수가 아닌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통일방식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짚어본다. 6.15 공동선언 이후의 통일시대에 대한 생각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송두율 저/ 한겨레 신문사/ 9천원.

아이슈타인, 피카소

20세기의 두 천재 아인슈타인과 피카소의 조우를 통해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한 책이다.

두 천재의 전기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풍요로운 지적·문화적·사회적 환경을 둘러볼 수 있다.

더불어 각기 다른 분야이지만 공통으로 나타나는 창조성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아서 I.밀러 저/ 작가정신/ 2만 2천원.